

제 2 권 그리스도와와의 연합

1. 가장 놀라운 연합

출처: *Spiritual Union and Communion*

저자: 아더 핑크(1886-1952: 목사이며, 순회 성경 교사, 영국 노팅햄에서 출생

역자: 박세봉

필자는 영적인 연합이라는 주제가 가장 중요하고, 심오하고, 거룩하며...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복되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일반적으로 이 주제는 가장 소홀히 여겨지고 있다. 신앙고백을 하는 기독교인들의 모임에서도 대부분이 “영적 연합”이라는 이 표현에 대해 알지 못하며, 심지어 이 표현을 사용하는 곳에서조차 이 귀중한 진리의 오랜 파편적인 지식만을 알고 있을 뿐이다. 아마도 피상적인 이 세대는 이 주제의 심오함 때문에 크게 소홀히 여기는 것 같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의 최고의 것에 들어가기에 갈망하고, 성령의 깊은 것들에 대해 더 풍성한 이해를 바라는 소수의 사람들이 남아 있다. 우리 역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주제를 다루어 보고자 한다.

가장 큰 신비이며 우리의 가장 거룩한 믿음의 기초를 형성하는 세 개의 중요한 연합이 성경에 계시되어 있다. 첫째는, 하나의 신격 안에서 신적인 세 분의 연합인데, 그 세 분은 서로 구별되는 위격을 지니시지만, 함께 영원하며, 함께 영광을 받으시면서,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을 이루시고 있다. 둘째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성과 인성의 연합으로서 그분은 하나님이며 사람이신 임마누엘이시다. 셋째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인데,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시고, 그들은 지체가 되어 하나의 신비한 몸을 구성하는 연합이다. 그러한 연합의 신비의 심오함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연합에 대해 정확한 개념을 형성할 수 없을지라도, 그 연합들은 성경에 명확하게 계시되어 있고 또한 다른 중요한 기독교 교리들의 필수적인 기초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신비한 연합들을 믿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께서 은혜롭게 조명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동일한 주제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구하는 것은 우리의 거룩한 특권이다.

자연 세계 속에서 가장 놀라우면서도 가장 위대한 신비는 하나님이 정신과 물질, 영혼과 육체, 이 사이에 결합을 이루신 연합이다. 그 어떤 유한한 지적 존재가 비물질적인 영과 진흙 덩어리의 연합을 상상조차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었겠는가! 잘 빳어진 흙덩어리 한 조각과 영혼은 서로 얼마나 다른가? 과연 누가 살아 움직이고 생각까지 하는 흙덩이(dust)를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는가? 육신의 몸이 건강을 유지되는 한, 스스로 자유로울 수 없는 영이 그 몸에 연결되고 묶여 있는 것을 과연 누가 상상조차 할 수 있었겠는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영혼과 육체 사이에는 어떤 한 연합, 곧, 실제적인 연합이며 인격적인 연합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 연합은 단지 자연의 신비로서, 인간과 영광의 주님 사이에 존재하는 ‘거룩한’ 연합의 신비에 비하면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저 아래에 있는 작은 신비일 뿐이다.

성경은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들 사이에 존재하는 연합에 대해 많은 언급을 한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요

14:20).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전 6:17).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엡 5:30, 32). 하나님의 아들과 땅의 벌레들 사이에 연합이 존재 하다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닌가! 그것은 대영제국의 왕이 그 나라에 있는 가장 가난하고 가장 못생긴 여인과 결혼한 것보다 훨씬 더 무한하게 놀랄만한 일이 아닌가!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간격, 하나님과 소멸될 인간 사이의 간격은 측량할 수 없이 무한하지 아니한가! 죄 많고 비천한 존재가 스랍 천사들도 그 얼굴을 가리고 “거룩, 거룩, 거룩!” 이라고 외치는 그분과 하나를 이룬다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아닌가!

사무엘 에일스 피어스(1746-1829: 칼빈주의의 침례교 목사)의 말을 들어보자.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의 연합은 놀라운 주제입니다. 이 연합은 영원한 연합입니다. 이 연합은 시간 세계 안에서 알려진 연합이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연합입니다. 이 연합은 훗날에 그 영광과 완벽함을 공개적으로 명백하게 드러낼 연합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은혜의 연합이며, 또한 영광의 연합입니다. 그 연합은 역사 속에서 자신의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로운 행위들의 기초이며, 또한 그 연합은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에 임하시고, 그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실 모든 영광의 기초이기도 합니다. 나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중요한 하늘의 진리에 대해 철저하게 문외한이 된 사실에 대해 탄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엄청난 것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진리들을 소홀히 여김으로써 많은 것을 잃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들은 중요한 진리들을 너무 소홀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그것들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모르면 모를수록 훨씬 더 나은 것처럼 성경을 대합니다. 아! 한탄스럽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의미나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실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과 관련된 신령한 진리들과 교리들을 너무 소홀히 여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예로부터 내려오는 영광스러운 그 은혜의 유산들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예리하게 느끼면서 성령의 역사가 매우 심각하게 멈추어져 있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며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습니다. 가장 분명한 것은, 우리 가운데 성령의 거룩한 임재와 그 분의 능력과 감화가 그토록 적은 가장 큰 이유는 초자연적이고 영적인 진리이며 영원한 복음의 신비들을 전파하는 일에 소홀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한 주제가 대단히 중요한 사실은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인 기도 중에 연합이 차지하는 위상을 볼 때 분명히 알 수 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요 17:20-21). 여기에서 우리 주님은 그들과 함께 가졌고 또한 그의 아버지와 가졌던 연합에 대해 말씀하심으로서 그의 백성 전체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셨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서는 연합의 결과로 따라오는 복들을 언급하신다. 우리는 여기에서 앞으로 생겨나거나 획득하게 될 어떤 연합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셨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그 연합은 영원부터

이미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주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들이 그 연합에 대한 명확한 지식을 가짐으로써 주께서 누리셨던 모든 유익들을 그들의 영혼 안에서 똑같이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신 것이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 17:22). 주님 자신과 택함을 받은 자들 사이의 연합이라는 주제는 그리스도의 마음에 참으로 감미롭고 복된 것이다. 그분은 그의 백성들이 그 연합을 알고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유익한지 잘 알고 계셨다. 그러므로 그분은 모든 세대의 성도들이 그 지식을 마음에 받고 그 안에 담겨 있는 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거듭 거듭 연합에 대해 말씀하신다. 독자들이여! 만일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분과의 연합에 대한 진리를 근본 진리로 여기셨다면, 우리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 그 진리를 가장 가까이 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구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우리 구원자이신 하나님 위에 유지되면서 지속될 것이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 17:22). 이 간구는 그리스도의 기도의 핵심으로써, 우리 구세주께서 그의 구속 받은 자들을 향하여 비는 최고의 바람을 표현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주의 간구는 그들을 향한 그분의 마음의 최고의 바람으로 요약된다. 주께서 기도하셨던 그 연합은 그것으로 인하여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들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것이다. 그 연합은 택자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합하여져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연합이다. 그 연합은 모든 복들 가운데 가장 중심되고 가장 큰 복으로써 그 기초로부터 모든 다른 복들이 흘러나온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요 17:23). 복음 안에서 위대하고 다양한 복들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구원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큰 복이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만큼 위대한 복은 아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았다면,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지 않으셨을 것이다. 이는 그분이 최고의 자비로서 우리를 위해 구원의 일을 행하기를 기뻐하셨던 것은 우리가 영원토록 그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칭의의 은혜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이기는 하지만, 연합만큼이나 위대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칭의는 연합의 결과인데, 결과는 결코 그 결과를 가져온 원인과 동등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또는 하늘에서 갖거나 참여하게 될,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복들을 능가하는 것임에 틀림이 없다. 그리스도와의 친교는 말로 다 할 수 없이 복된 것이지만 연합만큼 위대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합은 모든 친교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연합은 죄가 이 세상 안에 들어오기 전에 아버지께서 교회에 부여해 주셨던, 창세전에 작정된 모든 ‘영적인 복들’ (엡1:3)중에서 가장 위대하다. 그것은 그분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결실이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모든 신령한 복들의 근원이다. 만약 그분과의 연결이 없었다면, 중생도, 칭의도, 성화도, 영화도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모든 구원의 복들을 부여해 주신 것은 그리스도로 인함이었듯이, 그러한 복들이 누리지는 것 역시 하나님의

영원하신 경륜에 따라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상태에서만 가능하다. ... 그러나 성도들이 사랑하는 그분과 시간 세계 속에서 또는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그 생명력이 넘치고, 영적이고, 체험적인 연합의 근원은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하나님이 그분의 중보자와 그의 택함을 받은 자들 사이에 세워 놓으신 그 신비한 연합에 놓여 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리고 택함 받은 자들을 그의 몸의 지체로 정하셨는데, 그때에 하나님은 영원한 결혼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주셨고 또한 그들을 그리스도에게 주셨다.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결혼 관계 안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에게 주신 결과로서, 그리스도는 그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네게 장가 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 들며” (호 2:19). ... “그분과 그들 사이의 밀접하고 친밀한 연합을 생각해보라. 그러면 그대들은 믿음으로 그분에게 기대어 살도록 격려를 받을 것이다. 그 연합은 사람들 가운데 남편과 아내 사이의 연합보다 훨씬 더 친밀하고 사랑스러운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참으로 ‘한 육체’ 이지만, 그분은 그분의 배우자인 우리와 ‘한 몸’ 이며 ‘한 영’ 이기 때문이다(고전 6:19). 그분은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그분 안에 있다. 그리고 이 친밀한 연합으로 인하여, 당신은 그분과 그분이 값을 치르고 사신 모든 것에 대해 소유권을 갖게 된다” (에벤에젤 어스킨, 1680-1754: 분리파 교회 창시자).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의 연합은 매우 실제적이고, 생명력이 넘치고, 친밀해서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따로 떼어서 생각하신 적이 없으시다. 구속자와 구속함을 받은 이들 간에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 됨이 있으며 또한 그들 사이에는 관심에 있어서 절대적인 동질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자비의 아버지께서는 결코 그들을 따로 여기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실 때는 반드시 그의 신비적인 몸을 보셨으며, 교회를 보실 때는 반드시 머리되신 그리스도를 보셨다. 그러므로 성령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사실을 강조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해서 우리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히 2:14)이라는 구절을 읽을 수 있고, 또 구세주께서 나무에 못 박히셨을 때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힌 것은...” (롬6:6)이라는 말씀을 듣게 된다. 또 우리는 그분이 갈보리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을 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고후5:14)는 말씀을 듣게 된다. 그가 다시 살아나셨을 때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엡 2:5)라는 말씀을 듣는다. 그는 한 사람, 한 개인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로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골3:1).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는 말씀을 듣는다. 오!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의 하나 됨이 얼마나 뛰어나고 놀라운지!

2.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본질

출처: *Redemption: Accomplished and Applied*

저자: 존 머레이(1898-1975): 개혁주의 신학자, 스코틀랜드 배드베어 출생

역자: 이종원

그리스도와 의 연합은 구속의 적용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는 구속이 효과적으로 적용되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참여자가 되지 못한다. 바울은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에서, 그들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다고 말하는 동시에 또한 그들은 과거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 (엡 2:12)이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 (엡 2:3)이었음을 상기시켰다. 비록, 그들은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과의 교제로 효과적으로 부름 받기까지는 여전히 그들은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였다(고전 1:9).... 그들은 오직 부르심을 받은 후에야 그리스도와 의 교제를 알게 된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만 효력이 발생하는 그리스도와 의 연합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몇 가지로 대답할 수 있겠다.

1. 그리스도와 의 연합은 영적인 것이다.

신약성경에서 ‘영적인’이라는 단어보다 더 많이 왜곡된 단어는 거의 없다. 이 단어는 종종 뭉뚱해지는 일종의 감정적 고취를 뜻하는 것으로 사용된다. 신약성경에서의 ‘영적인’이라는 단어는 ‘성령으로부터 나온 것’을 가리킨다. 영적인 사람은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의 지배를 따르는 사람이다. 영적인 마음 상태는 성령에 의해 만들어지고 유지되는 마음 상태이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의 연합은 영적이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그 연합의 끈이 성령님 자신임을 의미한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고전 12:13; 참조, 고전 6:17, 19; 롬 8:9-11; 요일 3:24; 4:13). 우리는 구원하는 은혜의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와 성령의 밀접한 상호 의존관계를 평소보다 조금 더 상고해 볼 필요가 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다. 성령은 주의 영이시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령의 주이시다(참조, 롬 8:9; 고후 3:18; 뵤전 1:11).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이는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심을 말한다. 그리스도와 의 연합은 위대한 신비이다. 성령이 이 연합의 끈이라는 점은 이 신비를 손상시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진리는 연합의 비밀에 강력한 빛을 비추준다.

둘째로,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의 연합이 영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영적이라는 것을 주목하게 한다. 이 연합은 삼위일체 하나님 안의 세 위격의 연합과 같은 종류의 연합이 아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위격에서 볼 수 있는 신성과 인성의 연합과도 같은 종류가 아니다. 또한 이것은 사람을 이루고 있는 몸과 영혼의 결합 같은 것도 아니다. 이 연합은 단순히 감정이나 기분, 이해나 생각, 마음, 의지 또는 목적 등의 연합이 아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루는 연합은 구체적으로 정의될 수 없다. 그러나 이 연합은 강력한 영적인 성격의 연합이며, 성령의 속성 및 사역과도 조화를 이룬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사람의 분석의 영역을 초월하여 실제적으로 그의 백성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백성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2. 그리스도와 의 연합은 신비하다.

우리가 이 문맥에서 ‘신비한(mystical)’이라는 단어를 쓸 때, 성경에서 쓰이는 신비(mystery)라는 단어를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 단어를 자칫 ‘완벽히 인지할 수 없고 어떤 이해도 할 수 없는 것’을 나타내는 뜻으로 사용하기 쉽다. 그러나 이는 성경

에서 말하는 신비가 아니다. 로마서 16장 25-26절을 보면 사도바울은 이 단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핵심을 제시한다. 바울은 여기서,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 신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는 이 신비에 대해 다음 네 가지를 관찰할 수 있다. (1) 신비는 영원 전부터 감춰진 -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 속에 숨겨진 것이다. (2) 이 신비는 계속 숨겨져 있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따라 나타나게 되었다. (3) 하나님의 이 계시는 성경을 통해 전달되었고, 성경 속에 보관되었다. 이 계시는 모든 민족에게 드러났고 이제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4) 이 계시는 모든 민족이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취한다. 그러므로 ‘신비’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고전 2:9)’ 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셨고, 사람들은 계시와 믿음을 통해 이 신비를 알게 되고 적용하게 되었다.

그리스도와 의 연합이 신비라는 사실은 명백하다. 그리스도와 의 연합에 대해 말할 때, 바울은 부부간의 연합과 비유한 후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엡 5:32)고 말한다. 또한 바울은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골 1:27)라고 말하면서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나”(골 1:26)” 고 말한다. 그리스도와 의 연합은 그것이 비밀이기 때문에 신비롭다. 그리스도와 의 연합이 비밀이라는 사실은 연합의 소중함과 연합으로 인한 교제의 친밀함을 강조해 준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와 의 연합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되는 광범위한 비유들은 매우 인상적이다. 가장 상위 단계의 비유는 삼위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는 연합을 비유한다. 믿기 어렵겠지만 그 사례가 있다(요 14:23, 17:21-23). 가장 하위 단계의 비유는 건물의 돌들과 모퉁이 돌의 관계를 비유하는 경우이다(엡 2:19-22; 벧전 2:4-5). 이 두 사례를 한계로 하여 그 사이에서 각각 다른 수준의 존재와 관계로부터 다양한 비유들이 나타난다. 아담과 그 후손들 사이에 존재하는 연합(롬 5:12-19, 고전 15:19-49), 남편과 아내의 연합(엡 5:22-33, 요 3:29), 사람의 머리와 다른 지체들과의 연합(엡 4:15-16), 포도나무와 가지의 연합(요 15:1-8)등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무생물의 영역부터, 생명 그 자체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각 위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그리스도와 의 연합에 대해 유추할 수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우리에게 위대한 원칙을 가르쳐 준다. 확실한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의 연합의 본질과 형태를 모퉁이 돌과 다른 돌들의 관계나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머리와 신체 부위, 혹은 남편과 아내의 연합으로 축소시켜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다. 연합의 형태와 속성 및 종류는 각 사례마다 모두 다르다. 그들 사이에 유사성이 있는 것이지 동일한 것은 아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을 삼위 하나님 사이에 존재하는 연합의 수준까지 드높여서도 안 된다. 여기서도 역시 유사성은 동일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와 의 연합은 우리가 삼위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통합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해는 그리스도와와의 연합이라는 위대한 진리를 곡해한 여러 해석들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견해의 사고 과정을 보면, 우리의 사고를 항상 인도해야 하는 가장 단순한 법칙, 곧, ‘유사성은 동일성이 아니다’라는 원칙을 무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는 비유를 하는 것이지, 동일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피조물 중에서의 연합 중 가장 높은 단계의 연합은 바로 성도와 그리스도의 연합이다. 가장 신비로운 존재는 삼위로 계시는 한 하나님이다. 가장 큰 경건의 비밀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된 것이다(딤후 3:16). 하지만 피조물의 관계들 중 가장 위대한 신비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스도와와의 연합이다. 그리고 이 신비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의 연합을 비교함으로만 입증된다.

통상적으로 ‘신비한’이라는 단어는 믿음을 실천할 때 나타나는 신비함을 표현하는데 사용되어 왔다. 우리는 믿음의 삶에 지성을 넘어서는 신비함이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신자는 그리스도와와의 교제로 부름 받았고, 교제는 교통을 의미한다. 믿음의 삶이란, 높이 들림 받으시고 항상 계시는 구속주와 교통하며 연합하는 삶이다. 믿음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구속을 이루신 구속주께로 우리를 인도할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히 사시며 우리의 대제사장과 대언자가 되어주시는 주님께로 이끈다. 그리고 믿음이 우리를 살아가신 구세주이자 주님이신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감에 따라 교제는 최고조에 다다르게 된다. 사람들 사이에는 그리스도와와의 교제와 비견할 만한 그 어떤 교통이 없다.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과 교통하며 주의 백성은 주님과 교통하면서 서로 주고받는 사랑을 의식한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벧전 1:9)고 말하였다.

믿음의 삶은 사랑의 삶이다. 사랑의 삶은 교제의 삶으로서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기 위해 영원히 살아가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주님(히4:15)과의 신비한 교통의 삶이다. 그 교제는 주의 백성들의 유혹과 고통과 연약함을 넘치는 동정으로 대하시는 주님과의 교제이다. 이는 그분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기 때문이다(히 4:15).

그리스도와와의 연합은 구원의 교리 중 가장 핵심적인 진리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 안에서 예정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택한 자들을 위해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이루어진 구속의 성취가 얻어내고 획득한 모든 것들은 구속이 적용되는 모든 자들에게 실제로 허락되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완전한 지복의 상태로 나아갈 때에는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와와의 연합과 교통 안에 가득 담겨 있을 것이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은 양자로의 선택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하며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엡1:4-5)고 덧붙이고 있다. 분명한 것은 거룩으로의 택하심은 양자 삼음의 예정하심과 병행된다. 이것은 같은 위대한 진리를 표현하는 두 가지 방법이다. 이는 아버지의 선택에 속한 서로 다른 두 측면을 보여준다. 따라서 그리스도와와의 연합과 양자 삼음은 서로를 보완하며 이 놀라운 은혜를 드러낸다. 그리스도와와의 연합은 양자 삼음 안에서 그 절정에 다다르며, 양자 삼음은 그리스도와와의 연합 안에서 그 효력을 발휘한다. 하나님의 사람

들은 “하나님의 후사요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롬8:17)이다.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성도의 것이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고전3:22-23).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으며, 성도는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다(골2:3,10).

측량할 수 없는 충만한 은혜와 진리와 지혜와 힘, 선함과 사랑, 공의와 신실함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생의 삶과 앞으로 올 세상의 소망의 모든 필요를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는다. 따라서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외에 주님 안에서 확신과 힘과 평안과 기쁨을 공급받는 더 적절한 진리는 없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또한 성화를 촉진한다. 왜냐하면 모든 거룩하게 하는 은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들려올리신 구세주로부터 나올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교제와 그 특권에 대한 자각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이러한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도록 자극한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또한 영적 교감을 의미한다. 이 영적 교감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동행하게 만든다. ”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요일2:5-6).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요15:4).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주제에서 빠트리지 말아야 할 또 다른 측면이 있다. 만약 이것을 간과한다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인한 결과들에 대한 우리의 분석과 이해에 심각한 결점이 생길 것이다. 내가 말하는 또 다른 측면이란, 그리스도와 다른 두 위격의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인해 생기는 다른 두 위격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측면이다. 예수께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10:30)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그러므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이는 정확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요14:23). 이런 생각은 다소 놀랍게 들리겠지만, 틀림없이 맞는 얘기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성도들에게 오셔서 그의 거처를 삼으신다!

심지어, 더 놀라운 예수님의 말씀이 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요 17:20-23). 또한 성부 하나님만이 성도와 연합하고 성도 안에 거하시는 것이 아

니다. 예수께서는 마찬가지로 성령의 거하심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요 14:16-17). 그러므로 이 연합은, 그리스도와와의 연합을 통해 함께 따라오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의 연합이다. 성도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가장 거룩한 지성소로 들어간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졌기 때문이다(엡2:6). 그들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골3:3). 악한 양심의 마음에 보혈이 뿌려지고, 정결한 물로 몸이 씻김 받은 성도들은 이제 믿음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하늘에 들어가셔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기 때문이다(히9:24).

3. 사랑의 영원한 연합

출처: *A Complete Body of Doctrinal and Practical Divinity*

저자: 존 길(1697-1771) : 침례교 목사, 신학자, 성경 학자. 영국 노샘턴셔 케터링 출생

역자: 안선형

필자는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의 연합에 대해 다루려고 한다. 필자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특정한 시점에 성육신하여 인간의 육체와 뼈를 지니시고 우리의 형제 및 가까운 친족이 되어 우리와 하나가 되신, 말하자면 우리와 같은 본성이 되신 연합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을 것이다(히 2:11, 14, 16).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로 새로운 생명으로 일어나 중생하게 될 때 갖게 되는 그리스도와와의 생명의 연합도 다루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생명의 연합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형성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참 포도나무이신 그분 안에 살면서 열매를 맺는 가지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는 택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감취졌던 존재로 말미암아 후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된 것이다(참조, 롬16:7; 고후5:17; 12:2). 그 이후로 성도들과 하나님의 연합은 뚜렷하게 보이게 되는데, 그들은 한 때 그리스도 안에 있던 자들로서 이제는 언제나 그분 안에서 발견되고, 그분과 연합한 상태에서 죽으며, 그 연합 덕분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고, 그 후 영혼과 몸 전체가 하나님(성부, 성자, 성령)과 하나가 될 것이다. 그들은 아버지가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이며, 삼위의 연합은 그들의 연합의 모범과 훌륭한 사례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는 그 연합이 공개적으로 드러나기를 기도하셨다(요17:21, 23)

이제 필자는 택함 받은 자들의 하나님과의 연합을 그 기원 및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 경륜은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비롯되었으며, 하나님은 그 경륜에 의해 그들을 자신에게로 연합시키신다. 영원 전부터 시작된 이 사랑은(렘 31:3; 요17:23-24) 결합시키고 연합시키는 속성을 지닌다. 참으로 사랑은 하나님과 그분의

택한 백성을 연합시키는 띠인데, 하나님은 그 띠로 그들을 자신에게 더욱 가까이 연합시키신다. 사랑은 사람을 서로 엮어주는 연합의 띠이며, 서로 간의 우정의 띠이다. 요나단과 다윗의 영혼은 이 사랑에 의해 묶여서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자신의 영혼처럼 사랑했다. 이것이 성도 사이의 연합의 띠이며, 그들의 마음은 사랑으로 서로 묶여 있다. 이런 이유로 우애나 사랑은 연합 관계를 지속하게 하는 온전하게 매는 띠 또는 완전하게 묶는 띠라고 불린다(골2:7; 3:14). 사랑 때문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아주 친밀하게 결속되어 많은 사람이 한마음과 한뜻이 될 수 있었다(행4:32). 자,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제한 없이 더 강력하게 작용해서 사랑의 대상들을 하나님 자신에게로 이끌고 끈으로 묶으신 후 결코 깨질 수 없는 친밀감과 연합을 그들에게 허락하신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심지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담 안에서 타락하였을지라도, 또는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로 죄악을 범하고 허물이 있을지라도, 또는 회심 후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침륜에 빠질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롬8:38~39; 엡2:3~4; 호14:4). 연합의 이 띠는 마귀들과 인간들이 힘을 합친다고 해도 결코 끊어질 수 없다. 이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친밀하고도 사랑스럽고 다정한 존재로서 하나님께 속하며 있으며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존재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고, 그분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 하나님은 늘 그들을 생각하신다.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소망과 바람은 항상 그들을 향하며 있으며, 하나님은 그들이 잘 되기를 항상 생각하고 계획하신다. 주께서 택한 백성을 위해 예비하고 행하시는 그 선하심이 얼마나 큰가(슌2:8; 시139:17; 야7:10; 시39:19)!

택한 자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성부께서 성자와 백성을 사랑하신 때만큼 일찍이 시작되었고, 그 사랑은 마치 흡족함과 기쁨이 넘치는 사랑과 같았다. 세상이 있기 전에 그리스도의 기쁨이 사람의 아들들과 함께 있었으며(요15:9; 잠8:30~31), 그리스도의 사랑 역시 그분의 아버지의 사랑과 마찬가지로 결합시키고 연합시키는 속성을 지니고 있었다. 이로 인해 그리스도는 형제보다 더욱 친밀하게 그의 백성에게 결합되어 있고, 이에 그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아무 것도 끊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자기 백성을 지금까지 사랑하셨던 그리스도는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신다. 연합의 이 띠는 굳건하고 확실하게 지속되어 교회가 그리스도를 향해 바랐던 그러한 친밀함을 제공한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아8:6; 참조, 잠18:24; 롬8:35). 성령의 사랑 역시 똑 같이 언급될 수 있다. 이는 성령의 사랑은(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성 삼위 하나님께 연합시키는 띠이다. 그들에게는 영원한 사랑으로 택자들을 사랑하신, 그래서 그 사랑으로 굳게 영원히 그들을 삼위 자신들에게 연합시키신 세분 하나님이 있다. 그러므로 그들을 향한 성령의 사랑과 연합 때문에 성령께서는 때가 되면 그들 안에서 생명과 은혜의 영이 되어 주신다(롬 15:30). 이러한 사랑의 연합을 설명하고 입증하는 수많은 것들 중에 몇 가지 영원한 것들을 나누어 보겠다.

1.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연합

택함 받은 연합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다. 선택은 사랑을 전제로 한다(참조, 살후2:13). 루포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특별하다(롬16:13). 사도 바울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택하셨다고 한다(엡1:4). 택하심

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자들을 존재하게 하는데,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대표성을 지닌 존재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를 지닌다.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갖는 존재는 그들에게 허락된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이다(딤후1:9; 엡1:3~4).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를 지니고 있으면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없겠는가? 결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 그리스도와 택한 백성 사이에서는 밀접한 관계가 시작되었다. 그리스도는 백성들의 머리가 되시고, 백성들은 그에게 속한 지체가 되었다. 또한 그리스도와 백성들은 함께 택함을 받게 되는데, 먼저 그리스도는 본성의 질서에 따라 머리가 되셨고, 백성은 지체로서 그분에게 속하게 되었다. 그리스도와 그분 안에 있는 백성에 대한 택함을 언급할 때 이런 식의 표현이 가장 보편적이며 신령하다. 굿윈 박사(1600~1697, 회중교회 목사이며 신학자)는 “특히 자궁에서 머리와 지체가 각각 임신되지 않고 함께 관련되어 임신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우리 역시 택하심이라는 영원한 자궁 안에서 하나님의 신비한 한 몸을 함께 형성하며 지음 받는다.” 고 말하였다. 또한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로 선택받아 하나님의 백성의 머리가 되셨다. 우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선택되었지만, 그리스도는 본성에 따라 먼저 택함을 받으셨다. 택하심이라는 영원한 자궁 안에서 그리스도는 먼저 머리로 나오셨고, 우리는 지체로 나왔다.” 고 말했다. 어떤 친밀한 연합 관계를 머리와 지체의 관계로 표현하는 것보다 더 분명하고 더 가깝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택함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채우게 된다(엡1:22~23). 그러므로 성도의 안전과 보장은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와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그분 안에 있으며 이에 그리스도 안에서 보전된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로써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그분의 양이 된 백성을 빼앗아 가거나 그분의 손에서 떼어낼 수 없다(유1:1)

2. 영원부터 시작된 사랑에서 나온 그리스도와 택한 백성과의 혼인 연합

아담과 하와처럼 사람들은 본연의 결혼제도에 언약 안에서 두 사람이 한 몸이 된다. 이보다 더 친밀한 연합을 생각해 내기는 쉽지 않다. 두 사람의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그림자처럼 예표 한다. 그리스도는 교회와 혼인하여 하나가 되며, 또한 자기 몸처럼 교회를 먹이시며 소중하게 여기신다. 자, 그리스도와 특정한 사람들과의 공개적인 혼인관계는 회심과 동시에 일어난다. 그 날은 그들이 주님과 약혼하는 날이지만(렘 2:2),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이 모여 그리스도와 혼인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 때에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 소식은 더욱 널리 공개될 것이다. 그들은 남편을 위해 단장된 신부로서 하나가 될 것이며, 그 때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시작될 것이다. 그 결혼식은 가장 널리 선포될 것이며 엄숙하면서도 가장 장엄하게 거행될 것이다(계21:2)! 하지만 그리스도가 택함 받은 자들을 사랑하여 아버지께 그들을 자신의 신부와 아내로 요구할 때, 이미 비밀스러운 혼인 언약은 영원 전부터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여 그리스도께 주셨을 때 그리스도는 그들과 사랑 안에서 혼인 언약을 하였으며 그 이후로 그리스도는 그들을 자신과 결혼 관계에 있는 자들로 보셨다. 이것이 그 이후 그들에게 베풀어지는 다른 모든 은혜의 바탕이다. 그러므로 교회와의 결혼 관계 때문에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 보증인이 되어 주셨고 또한 자신을 주셨다. 그리스도는 타락이 초래한 모든 더러움과 허물로부터 교회를 씻어 거룩하게 하시려고 보혈을 흘리셨으며,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셔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

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셨다. 이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처음에 교회와 혼인 언약을 하실 때 가지셨던 그림이었다(엡 5:25-27). 이러한 경우는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인데, 그들은 결혼식과 첫날밤을 지내기 전에 은밀한 약혼식을 먼저 한다. 이 약혼식부터 합법적인 부부의 관계는 시작된다(신22:23~24). 이처럼 그리스도는 이방인 교회가 실재하기 전부터 이방 교회의 신랑으로 불리셨다(사44:5).

3. 그리스도와 택한 백성 간의 언약적 연합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백성은 그리스도를 그들의 머리와 대표자로 하는 언약적인 존재를 갖는다. 언약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부터 나오며, 그 결과물이기도 하다(시 89:2~3; 33~34; 사54:10). 이러한 덕들은 언약의 바탕으로서 언약과 함께 언급된다. 그러므로 이 언약은 보통 은혜 언약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태초부터 세워진 것이다. 그리스도는 그 언약의 중보자로 정해지셨다. 그리스도의 중보 활동은 이렇게 일찍이 시작되었으며(잠8:23; 미5:2), 창세전에 영생이 약속되었고, 은혜의 복들도 이때 예비된 바 되었다(딤후 1:2; 딤후 1:9). 이 모든 것들은 이 언약이 태초부터 있었음을 증명해준다.

자, 이 언약은 그리스도와 맺어지되 한 개인이 아니라 주의 백성들의 머리로서 맺어졌다. 이 언약은 그리스도 개인과 그분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백성과 그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맺어졌다. 행위 언약이 아담을 대표로 하여 그의 모든 후손들과 맺어진 것처럼, 그래서 아담은 오실 그리스도의 표상으로 불린 것처럼(롬 5:14), 은혜 언약은 그리스도를 대표로 하여 그분의 모든 영적인 후손들과 맺어졌다. 이러한 이유로 로마서 5장과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마치 이 세상에는 이 두 사람만 있었던 것처럼 묘사되고 있다. 즉, 하나는 첫째 아담으로 불리고, 다른 하나는 둘째 아담으로 불리고 있다. 은혜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는 그분의 백성을 대표하셨으며, 그 백성은 그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를 대표로 하는 연합 관계를 가졌다.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시고 행하신 모든 것은 그들의 이름과 그들의 유익을 위해 약속하시고 행하신 것이다. 그 일들이 그리스도에 의해 이루어졌을 때는 하나님은 마치 그 백성들이 행한 것처럼 여기셨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것들, 곧 은혜의 약속들과 복들, 역시 그들의 이름으로 받으셨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와 대표자로 삼아 그분과 하나가 되면서 그 약속들과 복들을 받았다.

4. 그리스도와 택한 백성 간의 법적 연합, 즉 백성을 향한 강력한 사랑과 애정에서 나오는 그들을 위한 보증의 띠

율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리스도와 택한 백성과의 관계는 하나 된 관계로서 법적인 보증인과 채무자의 관계와 같다. 보증인이 얽매인 빚을 갚으면, 채무자는 빚을 청산하게 된다. 그리스도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인이 되어 주셨다. 그분은 하나님께로 나아가 자신을 담보로 주셨다. 즉, 백성이 갚아야 할 빚을 대신 저주시고 죄값을 대속해 주시기 위해 자신을 담보로 내 주셨다. 하나님은 그러한 그리스도를 받으셨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은 하나로 여겨지게 되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빚을 지불하시고, 그들의 죄값을 대속하시고, 그들을 죄를 자신에게, 그리고 그분의 의를 그들에게 전가시킨 근거이며 바탕이다.

요약하면,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연합 및 관계는 태초부터 있었고, 그것이 그리스도가 오직 택함 받은 그들을 위해 행하신 모든 것과 고난을 받으신 근거와 이유이다. 따라서 은혜의

모든 복들은 다른 이들이 아니라 오직 택함 받은 그들에게만 부여되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그리스도가 특별히 그들을 위해 성육신하여 인간의 본성을 취하신 이유는 그들은 그분께 주어진 자녀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그들이 자신의 양 떼였고 교회였기 때문에 생명을 내어놓으셨고 자기 자신을 드리셨으며, 그들이 자신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히2:13~14; 요10:14~15; 엡5:25; 마1:21).

한마디로, 그리스도와와의 연합은 사랑에 의해 영향을 받고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의 가장 우선되며 첫 번째 되는 복이다. 그러므로 사랑은 다른 모든 은혜의 복들에도 적용된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 이는 먼저 택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 됨을 의미한다. 그 다음이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나니” (고전1:30)이다. 이에 굿윈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리스도와와의 연합은 칭의와 성화, 그리고 다른 모든 신령한 복의 근본이 된다. 그리스도는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그 후 그의 영을 보내주신다. 그리스도는 먼저 우리를 사로잡으신다. 이 모든 특권이 내게 주어지는 것은 내 힘으로 거듭나서 되는 것이 아니며, 그리스도가 나를 취하시고 그분의 영광과 믿음과 거룩을 내게 주시기 때문이다.”

4.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출처: *God's way of Reconciliation: An Exposition of Ephesians 2, 70-81*

저자: 마틴 로이드 존스(1899-1981): 웨스트민스터 채플의 목사이며 유명한 강해 설교자, 영국 웨일즈에서 출생

역자: 오웅근

“금흠에 풍성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엡 2:4-7).

이 말씀에는 꽤 정확하고 진실 되게 말할 수 있는 하나의 요지가 있는데, 성경의 어느 곳에서나 발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상태와 지위에 대한 말씀 중에서 가장 심오한 진술 중의 하나이다. 지금 이와 같은 진술을 하려면 수많은 예비적인 언급들이 있는 것이 확실하다. 필자가 반드시 첫 번째로 말해야겠다고 느끼는 것은 이것이 참된 기독교라는 것이고, 또한 이것 외에는 기독교의 가장 본질적인 것이 따로 없다는 점이다. 서술된 말씀에는 이 모든 사건의 심장부가 담겨 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를 위해 해주신 것이지 우리는 행한 것이 아니다. 즉, 기독교는 단지 우리의 어떤 결단이 아니다.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일을 행하는 것을 멈추고 다른 어떤 일을 시작하기로 결정할 수 있따. 그러나 그것이 기독교는 아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데, 그것 자체가 기독교는 아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우리가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진리인데, 실제적인 것이고, 이 보다 더 실제적인 것은 없다.

필자는 또한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사실이라고 강조하고 싶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그리스도인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와의 연합에 대한 위대한 가르침과 교리를 직면하게 된다. 연합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든다. 이 연합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인의 지위를 얻을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서 참으로 기본적이고, 근본적이며, 중대한 무언가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동시에, 이 교리는 너무나 영광스럽고 위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를 포함한다.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전체적이다. 말하자면, 우리는 생명 전체를 받아 다양한 부분에서 적용하면서 점점 더 그 생명을 이해하게 된다. 이것이 기독교이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이 선포를 통해 우리자신을 점검해 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하다. 우리가 이러한 용어들로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나는 내 자신을 이런 관점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어떤 일을 행하려고 시도하고 노력하면서 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또는 내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지만 사도가 이곳 전체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 사실은 분명히 매우 근본적인 내용이다.

위의 위대한 진술을 바라보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 진술을 철저하게 객관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몇몇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임재 안의 우리의 지위나 위치의 관점에서만 이 진술을 생각한다. 말하자면 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미 어떤 존재가 되었다고는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들은 이 진술을 죽음 이후에 우리가 부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맞이할 영광의 생명을 나누게 될 것이라는 진술로 여긴다.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진리를 붙든다. 그리스도는 무덤에서 죽었다가 살아나서 부활하셨으며 특정한 증인들 앞에 나타나셨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영광 가운데 있다고 믿는다. 그들을 말하기를 “이제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께 발생했던 사건들은 우리에게도 발생할 것이다” 라고 한다. 그들은 이제 이 사실이 믿음에 의해, 그리고 사실은 믿음만으로 우리에게 진리가 되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 진리가 우리에게 실체가 되는 것은 미래가 될 것이다. 필자는 이 관점을 “철저하게 객관적인 관점”이라고 부른다. 물론 이 관점은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것을 빼고는 완벽하게 옳다. 우리 모두에게 진리가 되는 관점이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죽는다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하게 되는 때가 임할 것이다. 우리의 몸은 변화되어 영화롭게 될 것이다. 우리는 살아서 주와 함께 다스리며 그분과 함께 그분의 영광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완벽하게 옳다.

그러나 필자는 이 진술을 이런 식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심각하게 잘못 해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그 해석이 그릇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주장을 하겠다. 첫째는 본문 전체의 맥락이 체험적이라는 것이다.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일어나게 될 어떤 것에 대해 상기시키는 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큰 관심은 그들에게 이미 어떤 일이 발생하였는지 그리고 그들의 현재 지위를 상기 시키는 것에 있다. 우리가 본문을 다룰 때는 항상 문맥을 살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 진술 전체에 대한 사도의 관심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엡 1:19-20)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즉,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이 그 당시에 이해의 눈이 밝게 되어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지 알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지 미래에 무슨 일을 행하실 것인지를 알게 해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다. 사도는 그들의 실제적인 모든 어려움 가운데 지금 감사해야 한다는 것에 관심이 있다.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는 5절에 더 강력한 증거가 된다. 사도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말한 후에 삼십 어구를 두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다시 말해서, 그는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순간의 너의 구원이다” 라고 말한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는 말은 그 시제를 따져볼 때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아왔다” 는 뜻이다. 즉, 무엇인가를 체험했다는 뜻이다. 이는 뭔가 주관적인 것이지 철저히 객관적인 것은 아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은 너무나도 자주 객관적인 면과 주관적인 면을 상반된 것으로 두는데, 사실 성경은 항상 이 둘이 병행되어야 하는 것을 보여준다. 나의 구원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측면이 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주관적인 측면도 있다. 이것이 사도가 우리가 이해하기를 간절히 바라던 내용이다. 즉, 이 진술은 영적인 면의 주관적인 체험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사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행하여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일으키셔서 하늘 보좌에 앉히신 것과 비교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1장의 끝부분으로 돌아가야 한다. 믿는 자인 우리를 향하여 그리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신” (엡 1:20)과 똑같은 능력이다. 바울은 “이제, 나는 하나님이 행하신 동일한 능력이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역사하고 있음을 알기를 원한다.” 고 말한다. 그렇다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려면, 우리에게 발생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동일한 능력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이 말씀에서 사도가 사용하는 모든 시제는 과거 시제이다. 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셔서 일으켜 세우시고 하늘에 앉히실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는 우리가 죽어 있을 때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행하셨다고 말한다. 즉, 우리가 죽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으키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우리가 살아났으며 일어나게 되었고 하늘에 앉게 되었다고 말해야 한다.

또한 아마도, 우리는 이것을 최선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확실히 이것은 사도가 그의 마음에 두었던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지위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과 정확히 반대라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다. 그는 이 세상의 관습과 공중 권

세 잡은 자와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들에 의해 인도함을 받고 있다. 그의 삶은 육체의 욕망에 사로잡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간다. 그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불신자와 정반대의 상태에 있다. 그는 생명을 받아 살아나서 일어나고 하늘 보좌에 앉음으로서 불신자와 완전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라는 단어는 언제나 대조적인 측면을 이끌어 온다. 우리의 이전 상태와의 완벽한 대조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지위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문맥 속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다. 우리는 죄 가운데의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야 하는데,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은혜와 구원의 상태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만일 그것이 지금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대한 진리라면, 우리는 두 가지 문제에 주의해야 한다. 첫째는, “어떻게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발생하였는가? 이 일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인 내게 사실이 되었는가?”이다. 사도는 이 질문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되었다고 대답한다.

당신은 사도의 계속적이고 반복되는 강조를 의식하는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에서 우리는 의심할 여지없이 모든 기독교 교리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놀랄만하며 또한 가장 영광스러운 교리 하나를 직면하게 된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에 대해 성경이 가르치는 전체 내용이다. 당신은 성경의 여러 다른 곳에 이 교리를 발견할 수 있다. 필자는 로마서 5장을 언급할 것인데, 이 부분은 연합의 교리에 대해 가장 방대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로마서 6장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연합 교리가 발견된다. 장례 예배에서 자주 읽히는 위대한 부분인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이 교리가 발견되며, 고린도후서 5장에서도 동일하고 분명하게 나타난다. 이와 비슷하게, 갈라디아서 2장 끝부분의 아름다운 말씀에서도 이 교리가 발견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 2:20). 이 교리는 필자에게는 가장 훌륭하고 가장 놀랄만한 교리인데, 이 복된 교리가 거의 주목을 받지 않는 것을 볼 때 항상 큰 놀라게 된다! 아마 몇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리를 두려워하는 것 같다. 그러나 에베소서 2장 및 여러 곳의 교훈에 따르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고 “그분 안에” 있지 않은 자는 결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연합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첫째는 대표적 또는 연약적 의미라고 불린다. 이것은 로마서 5장 12-21절까지의 가르침이다. 아담은 하나님에 의해서 인류의 머리와 대표로 간주되었다. 그는 인류의 대표였고, 연약의 대표였다. 하나님은 아담과 연약을 맺으셨고, 아담과 동의를 이루셨으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실 것인지와 여러 다른 것들에 관하여 아담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다. 자, 이것이 이 연합 교리의 첫 번째 의미이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도 신자들의 대표 및 연약의 머리로 언급된다. 아담은 우리의 대표로서 하나님께 반역하였다. 아담은 범죄 했고,

벌을 받았으며, 특정한 결과가 따라왔다. 그러나 아담이 우리의 대표였고 머리였기 때문에 아담에게 일어났던 일은 또한 그의 모든 후손과 우리에게도 발생하였다.

자, 이것이 이 문제의 한 측면이고 매우 중요한 것이다. 우리는 일반적인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것에 대해 무언가를 알고 있다. 외국 법정에서 이 나라의 대사는 나라 전체의 대표이고, 그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모두와 관련된 일들에 종사한다. 우리는 이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 모두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취하여졌던 행동들의 결과를 당하고 있다. 한 나라의 지도자와 공식적인 대표자가 행하는 것은 그 나라의 모든 시민들과 묶여있다. 자, 아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아담은 첫째 사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두 번째 아담이다. 우리는 첫 아담을 소유하고 있고, 마지막 아담도 소유하고 있다. 자, 이 가르침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새 인류의 대표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행하시고 겪으신 일은 그분 안에서 존재하게 된 새 인류 전체에게 적용된다. 그러므로 신자와 그리스도의 연합은 이러한 대표적인 의미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연합 교리는 이것이 끝이 아니다. 연합에는 또 다른 측면이 있는데 우리는 이를 신비적 또는 생명적인 면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요한복음 15장의 유명한 말씀 안에서 주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말하며 가르치신 것이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연합은 기계적이지 않고 생명적이고 유기적이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함께 연결되어 있는데 동일한 수액과 생명이 가지와 줄기 안에 있다. 그러나 이 부분만이 이 교리를 설명하는데 사용된 것은 아니다. 에베소서 1장의 끝부분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몸 전체와 몸의 다양한 부분, 특별히 머리와 의 연합과 비교하고 있다. 자, 나의 손가락 하나는 내 몸의 살아있는 부분이다. 이것은 단지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유기적인 생명적인 연합이다. 나의 머리를 통하여 흐르는 피는 나의 손가락을 통하여 흐른다. 그것은 내적이고 본질적인 일체이지 단지 대표적이고 법적인 또는 언약적인 연합이 아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복은 우리가 이 두 가지 방식, 곧 법적이며 대표적인 언약적인 방식 뿐만 아니라 유기적이고 살아있는 방식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것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발생한 일들은 우리에게도 발생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에 대한 놀라움과 신비이고 이것이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다. 영원한 신격의 제 2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와서 인성을 취하시고 연합하시며 공유하셨다. 그분의 사역의 결과로 우리 인간은 그분의 생명을 공유하고 그 분 안에 거하며 그로부터 나오는 모든 유익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다. 자, 필자는 처음에 당신에게 상기시킨 내용을 반복하겠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이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의 기독교는 도대체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는가? 기독교는 당신이 이루는 어떤 것이 아니다. 기독교는 당신이 시작하는 어떤 것이다. 사도가 우선적으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었지만 이제는 살아있다는 것이다.

당장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가?” 라는 질문이 생긴다. 죽어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던 우리가 살아가기 전에는 무언가가 발생해야 한다. 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킬 수 있는 어떤 일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결코 그 어떤 유익도 얻을 수 없는데, 그 이유는 나는 죽어있을 뿐만 아니라 정욕 및 이 세상의 신에 의해 다스림을 받는 피조물이고, 또한 하나

님의 진노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
 니” (엡2:3).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어떤 일이 발생하였다. 그리스도는 인간의 본성을 입으
 신 후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후, 형벌을 받으셨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리스도에게 부어졌
 다. 그것이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그리스도의 죽음의 전체적인 의미인데, 그리스도의 죽음
 은 죄가 징벌을 받은 것이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 것이었다. 만일 우리가 갈
 보리 십자가 안에 있는 이러한 사실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신약 성경이라는 눈이 없이
 십자가를 보는 것이다. 십자가에는 끔찍한 측면이 있고, 우리는 그 측면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버림받음으로 인한 그리스도의 울부짖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 27:46). 이는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체험하셨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사도는 여기에서 적극적인 측면
 을 강조하는데 훨씬 큰 관심을 갖고 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땅에 묻히셨고
 다시 일어나셨다. 하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엡 1:20-21). 즉, 다시 살리심, 일으키심, 높이심이 다 포함되어
 있다.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동일한 사건이 우리에게도 발생하였다고
 말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
 구에게나 발생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역사이다. 확실한 것은, 이것은 어떠한 입
 증이 필요하지 않다. 죄 가운데 죽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던 그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그에게 행하시는 일은 그를 살리시는 것
 이다. 하나님이 무덤에 있는 자기 아들의 죽은 몸을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으로 살리신다.

“살리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 뜻은 “살아나게 하다”, “생명을 부여하다” 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첫째 사실은 죽음의 상태를 끝마친다는 것이다. 우
 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있었고, 영적으로 태어나지 않았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안에는 신적인 빛줄기가 전혀 없다. 사람 안에 신적인 빛줄기가 남아 있다는 사상은 이 구
 절에 대치될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와도 대치된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상태는
 죽어 있는 상태이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비유는 입구가 돌로 막힌 무덤에 묻히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몸이다. 그렇다면 나의 죽음의 상태를 끝마치는 이 사건은 첫 번
 째의 적극적인 진리이다. 이제 나는 더 이상 허물과 죄로 죽어있지 않고, 더 이상 영적으로
 죽어있지 않다. 왜 그러한가? 그 이유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리
 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율법과 진노에 대하여 죽었다.

그리스도인은 이 진리를 확고하게 한 사람이다. 기독교의 시작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롬 8:1)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용서받기를 소망하는 자가 아니고, 또한 궁극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켜
 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자가 아니다. 만일 그가 기독교를 이해하
 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는 "나는 이미 거기에 있고, 죽음이 취소되었으며, 생명을 얻어 살
 아났다"고 말한다. 이 진술의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측면은 소극적인 측면인데, 그것은 나
 는 더 이상 죽은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다. 나는 죽는 것을 끝마쳤으며, 죄와 율법과 하나님
 의 진노에 죽은 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정죄함이 없나니". 당신은 이 말을 할 수 있

는가?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어야하는 진술이다. 성경은 이렇게 명확한 주장을 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지 않고는 절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으며 이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만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에게 있는 사실은 내게도 사리이다. 그리스도는 단번에 죄에 대하여 죽었고, 나는 그분 안에서 단번에 죄에 대하여 주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서 죽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견디셨을 때 나도 그 일에 참여하였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그분과 함께 죽었다. 나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죽었다. 그러나 더욱이 그리스도는 우리를 일으켜 주셨고, 우리를 살리셨다. 당신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인가 아니면 살아있는 상태인가?

그러나 이 경우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면을 살펴보자. 이는 하나님이 내게 생명의 새로운 영을 부여하신 것을 의미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롬 8:2).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다. 이것은 죽음 및 죽음의 상태와 정반대이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생명의 이 새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었고 매우 다른 영에 복종하고 있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니라"(엡 2:2). 그러나 이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더 이상 사실이 아니다. 생명의 새 영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살리심”은 무엇인가? 살리심은 중생이다. 사도 바울이 “그는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한 의미는 “그는 너희를 중생시키셨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당신은 거듭났으며 새롭게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중생이란 무엇인가? 나는 다음 정의가 가장 잘 되었다고 본다. 중생은 새 생명의 법(원칙)이 사람 안에 심겨진 것으로 영혼을 주관하는 성향을 거룩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이다. 이것이 중생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 있는 사역으로 내 영혼에 새로운 성향을 심겨놓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성량이지 기능이 아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기능이 아니라 새로운 성향이다. 당신은 성향과 기능의 차이가 무엇인지 물을 것이다. 그 차이는 다음과 같다. 성향은 기능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지를 결정한다. 성향은 어떤 사람을 음악가, 시인 등을 만드는 기능의 사용을 구성하고 주관한다. 죄인과 그리스도인,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는 신자 또는 그리스도인이 불신자에게 없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아니다. 그렇지 않다. 그 차이는 그리스도인은 새롭게 주어진 성향으로 인하여 그의 기능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전혀 새로운 목표를 향하는데 있다. 즉, 새로운 것은 성향 및 목표이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방향으로 돌아섰다. 그 사람 안에서는 새 힘이 역사하면서 그의 기능들을 인도한다.

이것이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리스도인 안에는 생명의 법이 있다. 즉, 새로운 성향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전인격에 영향을 끼친다. 즉, 생각과 마음과 의지에 영향을 준다.

당신은 살아났는가? 하나님이 당신 안에 이 생명의 법을 넣어 주셨는가? 당신은 당신에게 이러한 사건들이 이미 발생하여 당신과 불신자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당신은 살아났다! 우리는 죽어 있었고 생명이 없었으며 영적으로 전혀 기동할 수 없었고 영적인 식욕과 이해와 깨달음이 없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려면 더 이상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사실이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고 생명의 법이 심겨 졌고 또한 중생하였다. 이를 떠나서는 기독교는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결코 끊어질 수 없는 생명적인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연합으로 인하여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그 연합은 둘 사이에 친밀하고 신비한 관계를 맺어준다. 당시엔 생명을 가지고 있는가? 당신은 일으킴을 받았는가? 이것이 기독교의 시작이다. 이것이 없이는 기독교는 없다. 당신은 당신 안에서 역사하는 생명의 법을 알고 있는가? 즉, 당신 모르게 당신에게 영향을 끼치고, 당신을 빚고, 인도하고, 확신시키고, 주관하는 법이 당신 안에 있는 것을 아는가? 필자가 오해를 받을 위험은 있지만,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 당신은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은 사로잡힌 자이다. 생명의 법이 그에게 들어와서 새 성향이 그를 사로잡고 있다. 그리스도인은 그 법이 자신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선행 일을 시작하셨고 나는 그 사실을 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새 생명을 주셨다. 내 안에 새 생명이 있다! 나는 다시 태어났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에 있다.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우리의 지각이 깨어나 우리 안에서 역사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한다.

5.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믿음

출처: *Faith Unites Us to Christ, Sermons from 1828 to 1860.*

저자: 윌리엄 커닝햄(1805-1861): 스코틀랜드 신학자, 스코틀랜드 라나르셔, 해밀톤 출생

역자: 김성환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엡2:8)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의 효과를 잠시 생각해 보자. 구원에 아주 중요하고 필요불가결한 믿음의 주제에 대해 성경이 많이 다루고 있다. 우리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막16:16)는 말씀을 읽는다.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믿음은 사람의 존재의 전환점이 되는 구원, 곧 마귀의 권세로부터 그를 구출하여 그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구원과 동반하는 모든 것들을 창출한다.

믿음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우리는 사도가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라” 라고 말한 내용에서 이 연합에 대해 분명하게 듣게 된다. 믿음에 의한 효과로 나타나는 그리스도와 신자의 연합은 신약성경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다. 특히

연합의 친밀함과 중요성을 가장 강력하게 표현하고 전달하기에 적합한 모든 표현과 묘사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이 거하는 것” (골 1:19)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 이 충만의 어떤 부분이라도 오직 그리스도로부터만 흘러나올 수 있다. 구속의 언약은 사람이 직접적으로 그 언약의 중요한 당사자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맺어졌다. 그리스도가 이 언약의 조건들을 성취함에 따라, 언약이 보장하는 모든 복들이 그리스도에게 수여되어 그분의 소유가 되었다. 이 영원한 언약과 관련된 모든 것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그의 백성의 입장을 대신하여 그들의 머리와 보증으로써 행하셨다. 그리스도는 그들이 당해야만 했던 고난을 감당하기로 하였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것을 그들 스스로 결코 벌어들일 수 없기 때문에 대신 얻어 내어 채워주시기로 동의하셨다. 이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의 보증과 대속물로 받으셨고, 그리스도는 그 언약에 합당한 취급을 당하셨다.

이제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는 하나님의 정하심에 따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다. 즉, 그들 사이에 연합이 형성된다. 하나님은 그를 마치 그리스도처럼 여기시고, 그리스도가 그의 죄를 위해 대신 받으신 고난을 마치 그 사람이 당한 것처럼 대하신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구세주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전부 완전하게 순종한 것을 마치 그 사람이 직접 개인적으로 성취한 것처럼 여기신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의 의의 전가이며, 종종 그분의 적극적이고 수동적인 순종의 전가로 불린다. 즉, 그리스도와 신자의 연합이 주로 포함하는 것은 고난과 공로의 교통(나눔)이다. 그리스도와 의 연합과 교통은 모든 부분과 모든 면에서 신자들의 구원의 바탕이 된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것으로 보신다. 즉 그들이 마치 그분이 당하신 고난을 당한 것처럼, 그분이 행하신 의를 그들이 행한 것처럼 보신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위해 형벌을 지불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얻을 자격을 획득한 것처럼 간주하신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그들을 보시면서, 즉 그들이 그분과 하나된 것으로 보시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그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를 위해 값을 치르고 사신 복들을 부여하신다. 그들은 믿음을 통해 죄 사함을 얻고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또한 거듭나서 본성이 거룩하여지고, 궁극적으로는 거룩하게 된 무리들 중에서 기업을 얻게 된다. 그리스도는 모든 영향을 끼치시는 커다란 머리이다. 모든 신령한 복들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열매들이다.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 15:5)는 말씀처럼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다.

당신은 이제 죄인들의 구원에 있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았다. 우리가 평강을 얻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받는 수단 역시 믿음이다. 그 누구도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믿음을 소유한 자는 분명히 구원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소중하고 중요한 대부분의 복들이 믿음을 그 뿌리로 하여 흘러나온다고 선언한다. 또한 성도들은 오직 믿음의 도구로 하여 그 모든 복을 받는다. 그리스도와 신자들 사이에 연합을 이루는 분은 성령이시며 그분의 전능한 능력에 의해 그들의 마음에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은 그리스도와 신자들을 함께 연결하고 연합하는 끈을 이룬다.

이처럼 구원은 믿음을 통해 얻지만 동시에 "은혜로 말미암아"(엡 2:5, 8) 얻게 된다. 구원을 추적해보면 결국 전적으로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호의로 말미암는다. 은혜 또는 덕으로 주어진 믿음이든 또는 우리의 행위로서의 믿음이든, 그 믿음이 우리의 능력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가 마땅히 원가를 받아낼 만한 것이 아무 것도 없다. 우리의 수고나 행함으로 여겨지는 믿음으로는 그 믿음이 설령 우리의 권한 아래 있을지라도 회개는 물론 죄 사함도 얻지 못한다. 심지어 수고나 행함으로 여겨지는 믿음으로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믿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위해 그 어떠한 보상도 얻어낼 수 없다.

수고로서의 믿음이든, 은혜로서의 믿음이든, 실제로는 믿음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단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수단이다. 그분의 공로만이 우리의 구원 및 구원과 관련한 모든 것의 유일한 근거이다. 우리는 구원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빚진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고난과 순종으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위해 구원을 사셨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 친구들이여!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그리스도에게만 돌려야 할 자리를 내 자신의 믿음에게 내어주지 않도록 주의하라. 구원이 믿음에 의한 것이라고 언급하는 의미는, 공로를 정확하게 부인하는 그 믿음에 공로를 두는 것이 결코 아니다. 우리는 참으로 믿음에 의해 구원을 받지만, 그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에게서 벗어나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고 그분만을 의지하게 한다. 즉,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 고난 받고 행하신 것을 의지하게 만든다. 믿음은 끊임없는 신뢰의 행위이며,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위해 그리스도를 확신하는 것이다. 믿음은 언제나 우리가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해 그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다는 전적인 무능함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에 의한 구원은 은혜로 인해 구원 받는다는 말과 정확하게 일치될 뿐만 아니라 사도가 말한 것처럼,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에 의해 주어진다. 믿음과 은혜는 서로 일관성을 지닐 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해 가장 탁월한 설명을 제공한다. 우리의 구원을 믿음에 두는 것보다 복음의 값없는 은혜를 더 충분히 확립하고 더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믿음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선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중보자를 향한 끊임없는 호소이기 때문이다. 믿음은 모양과 본질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자신을 전부 아낌없이 주의 자비에 던지는 것이며 그

분만을 의지하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

6.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

출처: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I

저자: 조나단 에드워즈(1703-1758): 미국 회중교회 목사. 코네티컷 이스트 원저에서 출생

역자: 안선형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롬 4:5)

우리 자신의 의와 선행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혜택을 우리의 것이라고 판단하시는 것은 결코 우리의 자격이나 행위가 아무리 훌륭하고 선하다고 하더라도 그것들과는 무관하다는 의미이다. 필자는 이 사실을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해 몇 가지 명제를 가지고 특별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1) 그리스도의 백성은 그리스도와 어떤 연합 또는 관계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성경은 이 관계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으로 자주 표현하고 있고, 흔히 머리에 속한 지체와 줄기에 달린 가지로 비유하면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의 관계를 보여준다. 또한 신랑과 신부의 혼인 연합으로 비교되기도 한다. 필자는 이 연합의 유형을 결정하고자 주장하는 것은 아니며, 이 유형에 대해 어떠한 논쟁을 벌이려는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다. 연합이라는 단어가 이해하기 어렵고 잘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은 관계라는 단어를 사용해도 무방하겠다. 여기서 제시된 모든 종류의 비유들은 그리스도와 불신자들 사이에는 존재하지 않고 오직 참된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특별한 관계를 인정하는 비유들이다. 성경은 이 관계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으로 비유한다.

(2) 그리스도와의 관계 또는 연합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하며, 그 연합 상태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 진리를 증명할 필요는 없다. 당장 이성적으로도 알 수 있다. 성경은 또한 충분한 증거를 한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일5:12).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고전1:30). 먼저,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 그 후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시거나 또는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엡1:6).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이 주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근거가 된다. 성령님도 이 연합에 이러한 비유들이 잘 맞는다고 생각하신다. 몸의 지체들과 머리의 연합은 지체들이 머리의 생명에 참여하는 근거가 된다. 나뭇가지와 줄기의 연합은 가지들이 줄기로부터 수액과 생명에 참여하는 근거가 된다. 남편에 대한 아내의 관계는 아내가 남편의 재산에 대해 공동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부부는 법적으로 여러 면에서 한 몸으로 간주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참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법적인 연합이

있고, 이 연합으로 인하여 최고의 재판관은 한 쪽을 위해 다른 쪽을 받아들일 수 있다.

(3) 이처럼 믿음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속죄와 의를 자신의 것처럼 얻게 만든다.

이는 믿음으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은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대속과 의를 자기의 것으로 삼고 그것에 의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권리의 근거가 된다. 그 이유는 명백하다.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그분을 소유함으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그분의 속죄와 공로들이 우리의 것이 된다고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해 그의 영혼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연합에 의해 그가 그리스도의 공로를 소유한 것으로 여기시는 것이 합당하여진다. 이 사실은 어떤 사람이 자신의 뛰어난 가치와 사랑스러움으로부터 나온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공로와 혜택을 누릴 권리를 준다는 말과는 매우 다르다.

그리스도와 진정한 제자들 간의 특별한 관계로 인하여 성경이 그들을 하나라고 언급하는 것처럼,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이 관계 또는 연합에 이르기 위해 적극적인 어떤 활동을 해야 한다고 동의한다. 필자는 바로 그 활동이 믿음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의롭게 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정의하려는 것도 아니며, 그 믿음이 얼마나 많은 것을 담고 있는지 밝히려는 것도 아니다. 단지 믿음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할 뿐이다. 의롭게 하는 믿음은 이전에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고 분리된 영혼을 그리스도께 연합시킨다. 이제 그 영혼은 더 이상 멀어진 상태에 있지 않고 앞에서 말한 그리스도께 연합하는 관계를 맺고 있다. 즉, 성경대로 말하면, 그 영혼은 믿음에 의해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분을 영접한다. 성경은 믿음의 의미를 보여주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분명한 표현을 사용한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요6:35-39).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6:40).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요5:38-40).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매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요5:43-44).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1:12).

지금 시대에 이 말씀들이 이해하기 어렵거나 알기 어려운 비유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과 ‘그리스도께 나아가감’, 이 두 표현이 비유적인 표현이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 표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비유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이 사실만은 자명하다.

즉, 이전에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고 분리된 사람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관계도 없고 연합되지도 않은 사람들이 믿음에 의해 더 이상 분리되어 있지 않고 도리어 관계를 맺어 친밀한 상태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의 보상으로 구세주와 연합하게 하시거나 구세주 안에 있는 유익을 주시지는 않는다. 믿음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려는 영혼의 적극적인 활동이다. 믿는 자에게 믿음은 그 자체가 연합을 이루는 활동이다. 하나님은 활동적인 두 지적 존재 또는 인격체 간에 성립되는 연합 안에서 두 측을 하나로 보신다. 이때 두 측은 상대를 향해 자발적으로 합쳐지려는 상호 활동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백성에게 그리스도와 연합할 것을 요구하시며 그들을 활동 및 선택을 할 수 있는 이성적인 피조물로 대하신다.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들만이 법적으로 하나로 여겨질 수 있다고 보신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 사이의 실제 연합은 법적인 연합의 바탕이다. 즉, 그들 안과 그들 사이에 실제로 존재하는 연합은 재판관이 그들을 하나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리고 재판관이 신자들을 볼 때 그들 안에 그리스도와 하나로 여기고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연합하는 본성이 있다면 재판관은 그리스도의 대속과 공로를 마치 신자들 자신의 대속과 공로처럼 여기신다. 이는 필연적인 결과이거나 이미 함축되어 있는 것이기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

이런 방식으로 믿음은 신자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대속과 공로의 유익을 합당히 받게 하고 그 혜택을 누릴 권리를 갖게 한다. 즉, 믿음은 그리스도와 신자를 하나 되게 함으로써 최고 재판관 앞에서 하나로 받아들여진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자격을 갖게 되는데, 이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받기 때문이다. 사도 요한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요일5:12)라고 말한 것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고려한 것이 분명하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3:36). 성경은 믿음에 대해 묘사할 때 한 영혼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거나 그분께 나아가는 것으로 언급한 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께로 나아가 그분과 연합한 것이 그들이 그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근거라고 말한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께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요5:40).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과 공로가 믿음의 보상으로 믿는 자의 것이 된다고 여기는 주장과, 그리스도와 그들이 믿음에 의해 연합되어 재판관이 보기에 하나이므로 그리스도의 대속과 공로가 그들의 것이 된다는 주장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한다.

7.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짐

출처: *Studies in The Scripture*

저자: 아더 핑크(1886-1952): 목사, 순회 성경 교사, 저자, 영국 노팅햄에서 출생

역자: 박세봉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초자연적이고 생명력이 넘치는 연합을 이루고 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엡 2:10). 새로운 창조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이루어진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이다. ‘새 사람’은 “의와 참된 거룩 안에서 지음을 받은” (엡 4:24)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으라(또는 새 사람을 나타내라)고 권면을 받는다. 이것은 결코 진보나 성취의 문제가 아니라, 거듭남을 받는 그 순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발생하는 사건이다. “의로 지음을 받았다(칭의)는 것과 참된 거룩으로 지음을 받았다(거룩하여짐)”는 말은 그 ‘새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설명해주는 말이다.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은 사실이며 그 말이 암시하는 바가 있을지라도, 새 사람은 단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어떤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실제 상태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거룩하여짐은 이미 성취된 사실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삶을 살도록 되어있는 ‘성도들’(saints)이기 때문이다.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거룩하여진 상태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한다. 우리의 신분과 상태가 첫째 아담과의 연합으로 인하여 근본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과 같이, 마지막 아담과의 연합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분과 상태는 완전하게 변화 되었다. 신자가 그리스도와 언약적인 연합을 지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완전한 거룩한 신분을 가진 것과 같이, 그의 상태 또한 지금 그리스도와 실제로 생명 안에서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그의 안에 있다. 성령의 중생시키는 역사에 의해서 우리는 “주와 합하여져 있다” (고전 6:17).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나는 순간, 은혜 안에서 조금의 어떤 성장이나, 거룩한 삶의 어떤 성취도 조금도 더해질 것이 전혀 필요 없는 거룩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졌다. 그들의 칭의와 같이, 그들의 거룩함도 “그 분 안에서 완전” (골 2:10)하다. 그리스도 그분이 그들의 생명이며,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분과의 인격적인 연합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의와 거룩함이 되신다. 하나님의 자녀는 새로 출생하는 순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 (롬 1:7)이며, ‘거룩한 형제’ (히 3:1)가 된다. 이에 그들이 거룩한 성도이기에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름 받는 것이다. 오! 우리가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찬양해야만 하는 것이 아닌가!

어떤 사람이 성령에 의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게 되었을 때, 그는 즉시로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어 있는 사람들과 구별된다. 그러므로 이것은 ‘성령의 거룩케 하심’의 또 다른 측면이다. 이것은 한 신자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다. 성령께서 거듭난 자에게 내주하셔서 그들의 몸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은 얼마나 놀랍고도, 복되고도, 영광스러운 사실인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성령의 내주하심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거룩하여졌기 때문에 이어지며, 그 결과로서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인의 신분에서 있는 사람들 안에 ‘거주’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의 몸을 그분의 성전으로 삼으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회생으로 인하여 완전하고 영구한 거룩함이 우리의 것이 되었음을 확증하고 증언하는 것이다.

‘성령의 거룩케 하심’ (살후 2:13)은 적어도 4중적인 의미를 가진 포괄적인 표현이다. 첫째로, 이 표현은 성령이 초자연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

음을 받아' (엡 2:10)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하나 됨을 이루고, 이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거룩에 참여자가 된다는 것을 지적한다. 둘째로, 이 표현은 거듭난 신자는 불경건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분명한 변화가 나타남을 말해준다. 신자는 새로운 삶을 살도록 새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당장 죄 가운데 죽어 있는 사람들과 분리되어진다. 그래서 사탄과 죄와 세상에 대한 그의 신분과 상태는 더 이상 그것들과 함께 하지 않는 상태가 된다. 세 번째로, 이 표현은 성령이 친히 다시 살아난 그 영혼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것을 말한다. 넷째로, 이 표현은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거룩한 율법 및 모든 규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다주시는 것을 의미한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근거로 한다. 하지만 복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이 그분이 처음에 보았던 끔찍한 상태에 머물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디도서 3장 1절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종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말한다. 우리는 이 ‘씻음’이라는 용어 안에 내포하는 있는 모든 것을 다 말하지는 못할지라도 확실한 것은 그 용어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앉으실 만큼 우리의 마음에서 모든 우상들을 던져 버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종생의 씻음’에 의해서, 그 영혼은 본래적인 오염으로부터 깨끗하여져서 더 이상 죄를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혐오하게 된다. 더 이상 거룩한 율법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안에서 기뻐한다. 땅의 것을 향한 애착이 하늘의 것을 향한 애착으로 고양된다. 이 ‘새로워짐’이라는 것이 영화의 상태에 있는 성도에게 발생하는 것에 훨씬 못 미칠지라도 그것은 매우 실제적이고 근본적인 경험이다. 엄청난 변화와 변혁이 그 영혼 안에 이루어져서 그 영혼의 모든 기능에 유익한 효과를 가져온다. 이 ‘성령의 새롭게 함’이라는 것은 그 안에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마음과 정신이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하는 틀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그 영혼은 이제 하나님의 뜻이 모든 것 중에 가장 ‘선하고, 기쁘고, 온전한’ (롬 12:2) 것임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그것에 따르려는 깊은 바람을 갖고 신실한 노력을 하게 된다. 하지만 디도서 3장 5절에서 그 시제가 과거가 아니라 현재 시제인 것을 조심스럽게 주목해야 한다. ‘너희는 씻음 받았고, 새롭게 되었고’가 아니라 ‘씻음을 받고 있으며’ (washing)이고, ‘새롭게 되어가고 있는’ (renewing)으로 되어 있다. 즉, 이것은 성령의 계속되는 사역인 것이다.

신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작정과 목적 안에서 이미 완벽하게 거룩하여진 상태에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위해 그 사람의 이름으로 위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법정에 완벽하게 적합하도록 이미 모든 일을 해놓으셨다. 그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순간에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졌다. 따라서 그의 신분과 상태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다. 더욱이 성령이 그에게 내주하심으로 그의 몸을 성전 삼으시는 것은 그를 인격적으로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이 점에 대해 철저하고 분명하게 해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거룩한 행위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거짓 종교들의 근본적인 오류이다. 절대 아니다. 우리가 어떤 거룩한 행위들을 행하려면 그 이전에 반드시 먼저 성도가 되어야 한다. 그것은 마치 샘이 물줄기를 흘러 내보내기 전에 깨끗해져야 하며,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나무가 있어야 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으로 그분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적합하게 해놓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을 베풀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생명을 주신다. 그분은 거룩한 행동

을 할 수 있는 거룩한 본성을 우리 안에 창조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은 행실들로부터 깨끗하게 된 양심을 가지고 나아감으로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 뿌려진 피를 따라 우리를 흠 없게 하여 지성소에 바치신다.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 안에 창조된 거룩한 본성이다.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어떤 것이다. 즉,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 새 사람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아담인 하나님의 아들에 이르기까지 또 다른 형상으로 빛어지는 것이다. 그것은 쓰레기더미에서 자라난 사랑스러운 장미처럼 부패의 한 가운데 심겨진 거룩한 원리의 이식이다. 그것은 중생과 함께 우리 안에서 시작된 착한 일(빌 1:6)이 계속 진행되는 것이다. 그것은 ‘속사람’ (고후 4:16), ‘마음에 숨은 사람’ (벧전 3:4)과 같은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데, 그렇게 불리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영혼 속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동료들이 그것을 볼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씨’ (요일 3:9)나 ‘영’ (요 3:6)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신자가 죽기 전까지는 죄의 저주나 죄의 영향으로부터 건짐을 받지는 못한다고 해도, 이 거룩한 법 또는 속성을 받음으로 인하여 신자는 죄의 다스림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의의 자유함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신자들은 칭의를 받는 때에 이와 관련된 법적인 거룩함을 획득하여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설 수 있는 신분을 얻게 된다. 그들이 받은 거룩함은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특별한 백성임을 증명한다. 더욱이 그들은 또한 그들의 영혼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은혜로운 역사로 인하여 그들의 인격 안에 본질적인 거룩함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들의 존재 전체가 ‘새롭게 되어짐’을 입는다. 이는 죄의 독성이 사람 전체에 퍼져 있는 것처럼 은혜 역사도 그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의 인격의 전체가 새로워지고, 그의 영혼의 모든 기능들이 개조되어도 은혜는 옛 본성에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악이 추방되어지는 역사는 없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육신’ 또는 죄의 법(속성)은 뿌리 채 뽑혀지거나, 정화되거나, 더 나은 상태가 되지 않는다.

이제 우리는 성령이 본질적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룩의 법(속성)의 특징에 대해 가장 중요한 측면을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가 체험하는 거룩함은 우리의 마음이 신령한 율법에 순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너무나도 명백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수고로운 논쟁은 전혀 필요 없다. 모든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요일 3:4), 모든 거룩은 율법을 성취하는 것이어야 한다. 육에 속한 자연인은 율법에 복종하지 않으며, 실제로 그럴 수도 없다(롬 8:7). 왜 그러한가? 왜냐하면 그에게는 율법에 기꺼이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속성(법)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율법의 가장 큰 요구는 사랑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다. 그러나 중생하지 못한 사람에 관해서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요 5:42)고 기록되어 있다. 반면에 택하신 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이러하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신 30:6). 이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 (롬 13:10)이기 때문이다.

이 언약의 위대한 약속은 다음과 같다.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

을 기록하리라”(히 8:10).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겔 36:27). 그리스도께서 처음으로 그분의 백성에게 오실 때, 그분은 그들에게 전적으로 거룩과 그 거룩을 바라는 소욕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신다. 그러나 그분은 끔찍한 상태에 처해 있는 그들을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 그분은 그의 성령을 보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진지한 사랑을 심어주고, 또 그분의 길을 따르는 것을 기뻐하는 법 또는 속성을 부여하신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롬 8:8). 왜 그러한가?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어떤 일이든지 바른 속성(그 분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나와야 하고 올바른 법칙(그분의 율법, 또는 계시된 뜻)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오직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에 의해서만 가능하여진다.

우리가 체험하는 거룩은 마음과 삶이 거룩한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롬 7:12). 그러므로 율법은 외적인 의와 순종뿐만 아니라 내적인 의와 순종도 요구한다. 이 요구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마련하신 놀랍고도 은혜로운 역사에 의해 충분히 충족되어진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영원한 삼위 간에 놀랍고도 복된 협력을 볼 수 있다. 만물의 왕이시고 심판자이신 성부께서는 율법을 주셨다. 우리의 보증이 되신 성자께서는 율법을 성취하셨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율법에 순종하도록 역사하시기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 성령께서는 첫째로 그 율법을 사랑하는 본성을 부여해 주시고, 둘째로는 그 율법의 광범위한 요구들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주시고 가르치시며, 셋째로는 우리 안에 율법의 교훈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일으켜 주심으로 그리 하신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이 그분의 백성에게 전가될 뿐만 아니라, 율법을 기뻐하는 본성 역시 그들에게 부여된다. 그러나 우리 안에 거주하는 죄로 인한 저항 때문에,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은 이 생애 동안에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들의 불완전하지만 신실한 순종을 받으신다.

우리는 성령과 그분이 중생시에 나누어주시는 거룩의 법(속성)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창조주와 그분이 창조하신 본성이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성령은 그리스도인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시작해 놓으신 착한 일을 유지시키시고, 발전시키시고, 지속시키시며 완전하게 하신다. 성령은 영혼의 기능들을 강화시키고, 지도하기 위하여 그 영혼을 사로 잡으신다. 거룩의 열매들, 곧 거룩하여진 소욕들과 행위들, 사역들은 성령이 우리와 나누시는 거룩의 법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새로운 법 또는 속성은 그 자체로는 능력이 없다. 그것은 단지 그것을 주신 분에 의해 매일 새로워지고, 힘을 받고, 다스리심을 받고, 지시하심을 받을 때만이 우리는 “거룩하여진 그대로” 행하는 것이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거룩케 하시는 사역은 “죄죽임”(옛사람을 굴복시킴)과 “살리심”(새 사람을 새롭게 일으키심)의 이중적인 과정으로 진행된다.

우리를 거룩케 하시는 성령의 열매는 악과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될 때 체험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내 속의 육신 때문에 우리의 발걸음은 완전하지 못하다. 종종 육신의 눈으로는 도덕적이고 존경 받는 속물들과 성령이 내주하시는 신자들을 거의 구별할 수 없다. 그 뿐 아니라, 종종 그들(도덕적 속물들)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성령으로 감동되어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되며 이로 인하여 그 마음은 죄를 사랑하던 마음에서 씻김을 받는다. 깨끗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모든 새로운 믿

음의 행위는 더 나은 단계의 거룩하여지는 체험으로 나아가게 한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어느 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드러내실” 것이다(엡 5:27).

8. 모든 행복의 근원

출처: *Of Union with Christ, in The Complete Works of Thomas Boston*

저자: 토마스 보스턴(1676-1732): 스코틀랜드 장로교 목사이며 신학자, 스코틀랜드 베릭셔 둔스(Duns)에서 출생

역자: 스테반 황

필자는 이제 이 주제에 대해 적용을 하고자 한다. 필자는 관련 지식과 시험과 권면을 사용하여 이 석류 즙을 짜서 당신에게 주겠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관련 지식 사용

1. 성도들은 일반적으로 세상의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훨씬 더 품위가 있다. 비록 세상 사람들 중에는 성도들과 어울리는 것을 우습게 여기지만 성도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지체이며 하늘의 왕족에 속한 권속들이다(엡 5:30).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는다.

(1) 성도들 중 누구에게라도 박대하거나 핍박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이는 그들이 성도들을 대적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에게 하는 것이며(행 9:4), 이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주께서는 정확하고 분명하게 자신이 모독당하신 것처럼 분노하시며 그들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그들이 성도들에게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물론 성도들에게 악을 행한 것에 대한 책임도 물으실 것이다(마 25:42-45). 성도들은 그들의 구속자가 전능하시기 때문에 친히 원수 갚으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마땅하다.

(2) 경건한 자들에게 베푸는 호의는 그리스도를 위한 최고의 호의가 된다. 이는 성도들에게 베푸는 호의는 그들이 그리스도와 하나이므로 그리스도에게 베푸는 호의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 주께서는 그 호의를 받으시고 더욱 풍성하게 갚아주실 것이다(마 25:35-40). 그러므로 사도들은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갈 6:10)고 권면하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가? 사랑은 연결되어 있다. 당신이 당신과 늘 함께 하는 지체들을 사랑하면 그 사랑은 그 머리에 달을 것이다. 그리스도에게 사랑을 입증할 기회가 부족하다고 말하지 말라. 그리스도 때문에 형제들에게 하는 것이 당신이 심을 수 있는 최고의 씨앗이며 그 씨앗은 가장 풍성한 추수를 가져올 것이다.

(3) 신자들은 서로에게 지체들이다(엡 4:25). 모든 경건한 자들 사이에는 몸의 다리와 팔처럼, 또는 한 쪽 다리와 다른 쪽 다리처럼, 참되고 실제적인 혈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모든 지체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서로 연합되어 있다(고전

12:12). 그러므로 그들은 주의 성만찬 예식에서 인침을 받은 것처럼 ‘같은 떡’이라고 불리며 서로 간에 연합과 교통을 나눈다. 오! 만일 성도들이 이 위대한 진리를 믿는다면, 경건한 자들 사이에 이 세상의 것으로나 또는 영적인 것으로나 얼마나 서로 사랑하며 동정하며 돌보겠는가? 가인이 가졌던 그러한 무관심과 낯섬, 또는 차가움 등은 사라질 것이다.

(4) 그리스도의 교회를 찢거나 나누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음매 없는 옷을 찢는 것처럼 배은망덕한 행위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다른 지체들과의 교통을 끊어버리는 것을 개의치 않고 있다. 그들은 최악에 몰들지 않기 위해 그 지체들과의 관계를 끊는다고 말한다. 필자 역시 한 다리가 진흙에 빠져 더럽혀진다면 다른 다리는 따라 들어가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성도는 다른 성도와 죄 가운데서 교통해서도 안 된다고 믿는다. 하지만 그 누구도 다리 하나가 진흙에 빠졌다고 해서 그 다리를 잘라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육체적인 몸을 향한 다정함보다 훨씬 더 많은 다정함을 보여야 할 그리스도의 몸을 향해 그렇게 하지 않는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다른 지체들과 교통하기를 원하지 않더라도 그들은 우리와 가장 가깝고 친밀한 교통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리스도는 둘이 아니며 또한 분리된 두 몸체의 머리가 아니기 때문에 둘 중 하나는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련이 없게 된다! 만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있다면, 우리는 서로 가장 친밀한 연합과 교통을 가지고 있다.

2.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이 엄청난 지식은 우리의 거룩한 종교에 대한 매우 소중한 몇몇 원칙들을 알려준다.

(1) 성도는 은혜 가운데 인내하며 결코 완전히 또는 궁극적으로 은혜로부터 떨어질 수 없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와 성도들 사이에는 해체될 수 없는 연합이 있기 때문이다. 이 연합은 성도의 영생을 보장한다. 그 생명은 결코 잃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골 3:3). 이 연합의 끈이신 성령께서는 결코 그분의 거처를 떠나지 않으신다(요 14:16; 4:14). 이 연합은 하나님의 ‘씨’를 그 성도 안에 항상 있게 한다(요일 3:9). 그리스도는 그분의 지체 중에 하나도 잃지 않으실 것이다(요 17:12). 만일 이 연합의 든든함이 전적으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드는 신자에게 달려 있다면 연합은 끊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이 연합은 보모가 그녀 품에 아기를 안은 것처럼 주의 성령으로 신자를 붙드신 그리스도에게 있다.

(2)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가장 포괄적인 복음의 의무이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의무들과 비교하여 믿음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한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을 매우 애호한다(요 6:29; 요일 3:23). 우리가 당신에게 믿으라고 당부할 때는 이 말은 당신이 모든 특권을 갖고 모든 의무를 행하라는 뜻과 같다. 이는 믿음은 우리의 영혼을 성도들의 가장 근본적인 특권인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어 주기 때문에 모든 특권과 모든 의무를 다 가지며 행하는 비결인 것이다. 만일 당신이 믿는다면, 사술의 첫 번째 고리를 붙든 자가 모든 사술을 다 붙든 것과 마찬가지로 것처럼, 당신은 실제로 모든 것을 행한 것이다. 만일 당신이 믿지 않는다면 당신은 아무 것도 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믿음이 없이는 당신은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며, 그리스도가 없이는 당신은 아무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요 15:5; 참조, 히 11:6).

(3)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에 의해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는 교리에 대한 견고하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 불경한 인간들은 이 교리를 조롱하며 상상에 의한 의와 칭의로 자신들의 공로로 삼는다며 비웃는다. 한편, 개신교의 교리를 부패시키는 자들은 믿음과 회개와 새로운 순종을 복음적인 의로 삼고 그 위에서 복음의 율법을 성취함으로 우리는 의롭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에게서는 칭의를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의외에는 다른 의가 필요 없다. 이는 신자는 믿음에 의해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우리는 그분과 하나이기 때문에 그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의 의 안에서 그분과 교통을 나눈다. 그분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은 이러한 가장 견고한 근거로 인하여 가능하다. 그 근거 위에서 그분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거나 또는 우리의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자발적으로 신자의 담보가 되어 주셨고 채무자인 우리는 믿음으로 동의한다. 이러한 의가 신자에게 전가되어 그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보다 더 합리적인 것이 있을 수 있을까?

(4) 참된 회개와 거룩함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는 혜택들로서 그것들을 얻는 길은 믿음이다(행 5:31; 마 1:21). 성령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효과적으로 부르시며 그 믿음에 의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신다. 그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참된 회개와 거룩함이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은 채 어떻게 참으로 회개하며 참으로 거룩하여질 수 있겠는가(요 15:5)? 어떻게 믿음이 없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가능하겠는가? 또한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이러한 혜택들이 없이 뭔가를 행하려고 하는 것은 마치 바위 위에 떨어지는 물방울과 같지 않은가?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를 모든 선한 역사의 머리로 삼으시고 그분으로 인하여 모든 열매가 맺히도록 하셨다.

(5) 마지막으로, 신자들의 몸은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갖게 될 것이다(롬 8:11). 그리스도와 신자들의 몸 사이에는 죽음이 끊을 수 없는 어떤 연합이 있다(살전 4:14). 그러므로 그들의 몸은 항상 흠 속에 누워 있지 않을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는 그분의 지체를 한 사람도 잃지 않을 것이다.

3. 그리스도와의 연합 교리는 우리에게 성도의 행복에 대해 알려준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모든 행복과 가장 풍성한 특권의 바탕이다.

(1) 그리스도는 성도들의 것이다. 배우자는 “내 사랑하는 자는 네게 속하였다”(아 2:16)고 말한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에게 관심이 있다. 그분은 그들의 주이시며 만형이시고 그들의 남편이며, 그들의 머리이시다. 그분이 어떤 분이든 그들은 그분으로 인하여 행복하다. 신성의 충만함이 그분 안에 거한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의 아버지이시다(요 20:17). 그분의 자비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비이며, 그분의 능력은 그들을 보호하는 능력이며, 그분의 모든 것을 보시는 눈은 그들을 인도하는 눈이다. 이처럼, 그들은 결코 마르지 않는 샘을 가지고 있고, 결코 닳지 않는 보화를 가지고 있으며, 결코 멈추지 않는 만찬이 있다.

(2) 그리스도께서 소유하신 모든 것이 그들의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만물의 상속자이시니 모든 것이 그들의 것이다(고전 3:22-23). 그리스도에게 만물이 속하였으니 그분을 소유한 그들은 만물을 소유하게 된다. 연합은 그리스도와 신자들 사이의 교통을 허락한다. 그

리스도의 적극적이고 소극적인 순종은 그들의 의롭다 함을 위하여 그들의 것이 되어 마치 그들 자신이 그 순종을 행한 것처럼 여겨진다. 그리스도의 영과 말씀과 섭리는 그들의 거룩함을 위해 그들의 것이 된다. 하늘의 그리스도의 능력 역시 그들의 영화를 위해 그들의 것이 된다. 한 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광대한 언약은 그 안에 담긴 모든 귀중한 약속들과 함께 그들의 것이기에 그들은 이곳에서 그리고 저 영원한 세상에서 행복하다(벧후 1:4).

(3)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완벽하게 안전하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롬 8:1). 그들의 죄악은 여전히 하나님 눈 앞에서 거슬리는 것이며 다른 사람들의 죄악처럼 정죄함을 받아 마땅하지만 그들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다. 이는 그들이 은혜 언약의 자상한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이 범죄할 경우 아버지의 화로 인하여 임시적인 징계를 받게 될 것이지만 그 이상은 아니다(시 89:30-33).

(4) 주께서는 그들의 성품과 착한 일과 의무가 비록 많은 결함이 있을지라도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시며 영접하신다. 주께서는 그들의 몸이 죽음을 지날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받으시며 (엡 1:6), 그들의 착한 일에 많은 더러운 찌꺼기가 끼어 있어도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 일에 묻어 있기 때문에 받아주신다(아 5:1). 그들이 행한 의무 역시 율법이 요구하는 바에 한 없이 미치지 못하지만 받아들여진다(아 2:14).

(5) 그들의 모든 필요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된다(골 2:10). 연합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와 교통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모든 소유가 그들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는 그들의 부족을 얼마든지 채우신다. 그리스도는 빛진 과부와 결혼하시는 것처럼 그들의 모든 빛과 공평, 그리고 모든 필요에 대한 해답이 되신다. 따라서 성도들은 지혜, 의, 거룩함, 구속 등, 모든 것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다(고전 1:30).

적용: 당신은 이 사실들을 점검함으로써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구속을 당신에게 적용 시키셨는지 확인할 수 있다. 만일 그렇게 확인되면 당신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만일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없이 구속만을 적용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착각일 뿐이다. 당신은 이러한 표시들에 의해 당신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점검할 수 있다. 일반적인 표시는 이것이다. 만일 당신이 이전에 묶여 있던 것들로부터 끊어지지 않았고 또한 모든 것이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가 있지 않다면 당신은 다음 세 가지 단계를 취할 수 있다.

1. 당신은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을 내려놓고 새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에 당신 전체를 맡기라. 이는 율법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것을 뜻한다(롬 7:4). 당신은 지금까지 그리스도와 무관하던 여러 확신들을 내려놓고, 주 앞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철저히 의지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리스도만이 당신이 신뢰하는 모든 것이 되게 하라(빌 3:8) 이것이 분명한 증거이다(빌 3:3; 마 5:3).

2. 당신은 온 마음을 다해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취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죄로부터 분리되어 죄와 멀어져야 한다(시 119:128; 73:25). 사람

의 소욕은 자연스럽게 세상과 정욕을 향하게 되어 있다. 만일 그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은 정욕과 섞여 있다. 하지만 은혜는 그 마음을 정욕과 대항하게 만들고 정욕 대신에 그리스도를 바라는 마음을 불타게 한다(마 13:45-46). 이것이 확실한 증거이다(마 5:6).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행함에 있어서는 죄로부터 분리될 수는 없지만 마음에 있어서는 죄와 분리되기를 바란다(롬 7:24). 이러한 점에서 그리스도는 왕관을 가지시며 정욕은 십자가를 진다(갈 5:24).

3. 당신은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마 16:24). 자연인에게는 자기 자신이 잘되는 것이 그의 전부이다. 그러나 은혜는 내 자신을 보좌에서 내려오게 하고 그리스도를 그 자리에 앉힌다. 사람이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있는 동안에는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관심을 갖는다. 하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 마치 강이 바다와 이어지면서 더 이상 서로 구별되는 도랑이 사라지는 것처럼 모든 관심이 그리스도의 관심과 일치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분리된 자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의 차이는 그들의 관심사에서 차이가 난다.

9.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세례

출처: *From Baptism-A Burial*

저자: 찰스 스펔전(1834-1892): 영향력 있던 영국 침례교 목사. 영국 에섹스 켈비돈 출생

역자: 조현목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6장 3~4절).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葬事) 그리고 부활을 제시하며 그것에 대한 우리의 참여를 의미한다. 이 가르침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우리의 대표인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생각해 보자. 그분이 죽으시고 장사되실 때는 우리를 대신하여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다. 이 글은 교리를 제시할 만큼 세례에 대한 가르침을 제공할 것이다. 우리는 세례를 가르치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고 그 죽음에 따르는 모든 유익에 참여하게 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와 동등하게 중요한 두 번째 문제가 있다. 그것은 세례로 제시되고 있는 그리스도와의 실제적인 연합이며, 이는 우리의 체험의 문제이지 교리에 관한 교훈이 아니다. 만일 우리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면 우리 각자에게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과 장사됨, 그리고 일어섬의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

필자는 당신이 세례에서 제시되는 진리대로 우리의 대표인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믿기를 바란다. 우리 주 예수님은 그분의 백성을 위한 대속물로서 주께서 죽으실 때 그들을 위해 그

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 우리의 위대한 칭의 교리는 바로 이 사실에 놓인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후 우리를 보증하는 자리에 서셔서 우리 대신 고난 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써 죄에 대한 희생을 보여주셨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개인이 아닌 우리의 대표로 삼는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셨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죽음에 이르는 세례를 통해서 그분과 함께 장사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것으로서의 세례는, 첫째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이 우리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이 순간 온 마음을 다해 이를 받아들이자. 우리에게 다른 어떠한 소망이 있는가? 거룩하신 주께서 영광의 높은 곳으로부터 내려오셔서 스스로 인간의 형상을 취하심으로 우리와 하나가 되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빌 2:8) 우리의 모든 죄를, 심지어 당신과 나의 죄까지 짊어지심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였다. 당신은 이 진리를 받아들이며 주 예수가 당신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당신을 지지하셔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는가? “아멘, 아멘!” 이라 말하라. 그분은 나무에 올라 이 모든 죄책을 짊어지셨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했을 고통을 우리 자리에서 우리 대신 받으셨다. 우리의 상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상함은 아버지를 기쁘시게 했다. 하나님은 그분을 슬픔을 당하도록 두시고 그분의 영혼을 죄를 위한 제물로 바치게 하셨다. 당신은 예수님을 우리의 대속자로 기쁘게 받아들이는가? 오! 사랑하는 자들여! 당신이 물로 세례를 받았든지 받지 않았든지 한 가지 질문을 해 보라. “당신은 주 예수님은 당신의 보증인과 대속자로서 받아들이는가?” 만약 아니라면, 당신은 자신의 죄값을 짊어져야 할 것이며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공의의 시선 아래에 서야 할 것이다.

자, 우리가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를 대신 하였다는 사실과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그분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에 대해 확증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우리의 믿음을 증표로 하여 물로 된 무덤에 동의하며 그 무덤에 장사되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 준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신 그리스도,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대속하심과 보증하심 그리고 대속제물 되심은 근본적인 믿음의 문제인 것이다. 우리의 신뢰는 전적으로 주의 죽음에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본 되심이나 그분의 삶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죽음과 합하여 세례 받았다. 이로써 우리는 모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있으며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로 인함이라 고백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장사 지낸 바 되었다면 이는 내 자신이 죽었기 때문이지 다른 누군가가 나를 대신하여 죽은 것을 내가 인정했기 때문이 아니기 때문이다. 세례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왜 살아 있는 사람이 장사되어야 하는가? 왜 다른 사람이 그를 위해 대신 죽은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장사되어야 하는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다는 것은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리스도와 함께 한 나의 죽음은 그분과 함께 장사됨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그분이 우리와 하나이시기 때문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임의적인 선택으로 자기 백성의 죄를 취하신 것이 아니다. 그들이 자기 백성이고 그리스도는 그들을 대표하는 머리가기 때문에 그분이 자신의 백성의 죄를 취하시는 것은 가장 당연하고 적합하고 적절했던 것이다. 이러

한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하셨다. 그분은 자기 백성을 대표하는 언약의 대표였다. 그분은 교회, 곧 그의 몸의 머리이시다. 지체가 죄를 짓는다면 비록 머리는 죄를 짓지 않았을지라도 몸의 행동으로 인한 결과를 감당하셔야 했다. 아담과 아담에 속한 자들 사이에 자연적 관계가 있는 것처럼, 둘째 아담과 그에게 속한 자들에게도 동일한 관계가 존재한다. 필자는 첫째 아담이 행한 것을 나의 죄로 받아들인다. 독자들 중에 몇몇은 이러한 언약의 경륜과 사실에 대해 따지고 싶어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정하신 것을 기뻐하셨고 필자는 그 결과를 느끼면서 논쟁할 필요 없다고 본다. 내가 조상 아담의 죄를 받아들이고 그의 안에서 죄를 지었음을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로, 큰 기쁨으로 둘째 아담의 속죄제물 되심을 받아들이고 그분 안에서 이를 기뻐한다. 나는 죽었고 다시 살아났다. 나는 나의 언약의 머리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고, 죽었고, 율법을 지켰고 공의를 만족시켰다. 나는 내가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신 나의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사실을 믿고 있으며 이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세례를 통해 장사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이 진리를 알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진리는 확실하고 위로가 되는 위대한 진리이다. 이 진리는 신자들을 거룩하게 효력을 가지고 있다. 이를 깨달으라.

큰 죄로 인해 사형을 선고받은 어떤 사람을 가정해 보자. 더 나아가, 그 죄로 인해 그 사람이 사실상 이미 죽었다고 가정하자. 이제, 하나님의 경이로운 역사하심으로 그가 죽음 이후 다시 살아났다고 가정하자. 그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서 산 사람들 가운데 있다. 그는 그의 범죄에 대해서 어떤 심정이겠는가? 그를 죽음에 이르게 했던 그 범죄를 그가 다시 저지르게 될까? 나는 단호히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오히려 그는 “나는 죄의 쓴 맛을 보았고 죄로 인한 죽음으로부터 기적적으로 살아나 다시 살게 되었다. 이제 전심으로 나는 나를 죽인 그 죄를 증오하고 혐오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겠는가! 죄의 삯을 겪은 자는 장래를 위해 죄를 피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하지만 당신은 “우리는 결코 죽은 적이 없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죄악에 대한 합당한 형량을 받지 않았다” 라고 대답한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행하신 것도 당신에게 동일하게 일어났다. 주님은 그 사건을 당신에게 동일하게 발생한 사건으로 간주하신다. 당신은 예수님과 합한 자이기 때문에 당신은 그분의 죽음을 당신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고통을 당신의 평화를 위한 징벌로 삼는 것이다. 당신은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죽었고, 지금은 기이하고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부패의 구덩이에서 깨냄을 받아 새로운 삶으로 일으킴을 받았다. 당신은 다시 죄 가운데로 갈 수 있으며 또한 가고 싶은가? 당신은 하나님이 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았고 그분이 죄를 지독히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는 죄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넘겨졌을 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아들을 슬픔 가운데 두시고 사망으로 그 아들을 벌하셨다. 이후 당신은 하나님이 증오하시는 저주받은 것으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 당신의 영혼을 위해 구세주께서 당하신 엄청난 슬픔의 효력은 거룩하게 하시는 것임에 틀림없다.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그 안에서 살겠는가? 사망의 저주를 통과한 우리가 어떻게 그 끔찍한 형벌과 세력을 참고 견디겠는가? 어떻게 우리가 살인적이고 악랄하고 치명적이고 심히 가증한 악으로 되돌아가겠는가? 그럴 수 없다! 절대 그럴 수 없다.

이 교훈이 이 모든 주제의 결론은 아니다. 성경은 우리를 부활을 위해 장사된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 된 목적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 (롬 6:4)이다. 그리스도 안에 장사되라! 무엇을 위해서? 영원한 죽음을 위해서? 아니다. 자,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거하는 당신은 그리스도가 가는 곳으로 따라갈 수 있다. 그분을 바라보라. 그분은 먼저 무덤으로 들어간 후 사흘 뒤 아침 무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만일 당신이 참으로 그리스도와 합한 자라면 당신은 항상 그분과 함께해야 한다. 당신은 그분의 죽으심과 함께 해야 하고 그분의 장사됨과 함께 해야 한다. 그러면 당신은 그분의 부활에 함께 하는 자가 될 것이다!

나는 지금 죽은 사람인가? 그의 복된 이름으로 말미암아 아니다. 성경은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라” (요 14:19)고 기록하고 있다. 사실 나는 어떤 의미에서는 죽은 자이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러나 다른 의미에서는 죽지 않았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골 3:3). 그렇다면 감추어진 생명을 가진 자가 완전히 죽은 자가 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상태와 함께 한다. 그분은 살아 계신 그리스도이신 것처럼, 나 또한 살아 있는 영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가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일어나게 된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이전의 율법적인 생명은 율법의 형 집행으로 말미암아 우리로부터 제하여져서 율법이 우리를 보기에 죽은 자였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죽음으로 일어난 부활의 새생명,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받았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의 삶이다. 우리의 삶은 처음 지어진 생명에 의한 삶이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 지어진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다. 이제 우리는 성령에 의해 거룩하고, 의롭고, 기쁨이 넘치는,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게 되었다! 육신의 생명은 우리에게 방해가 된다. 우리의 힘은 성령 하나님께 있다. 가장 고상하고 뛰어난 표현으로 하자면 우리의 삶은 영적이며 하늘에 속한 삶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교훈은 가장 확고하게 세워져야 한다.

필자는 실천적인 결과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당신이 이 힘을 깨닫기를 바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면, 새 생명이 어찌 옛 생명의 방식을 따를 수 있겠는가? 영적인 사람이 육신에 속한 사람처럼 살겠는가? 죄의 노예였던 당신이 보혈로 인해 자유롭게 된 후 어떻게 옛 노예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 당신이 옛 아담의 생명에 속해 있었을 때는 당신은 죄 가운데 살며 그것을 사랑했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은 죽어 장사되었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왔다. 주께서 당신을 건져 내신 비참한 것들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가? 만일 아직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살겠다던 당신의 고백은 거짓이 된다. 만일 당신이 정욕 가운데 행하고 있다면 당신은 거룩하고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복된 교훈들을 발로 짓밟게 될 것이다. 영적인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난 당신이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 또는 이전의 삶보다 나아지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당신은 기독교를 놀림 거리 및 속담으로 만들어 버리게 될 것이다. 세례를 받은 당신은 세상을 향해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죽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왔다” 고 말하였다. 그 이후로 우리는 지금 새로운 질서를 따라 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정욕들은 죽은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새로운 속성을 불어넣으셨고, 우리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어진 새 사람이 되었다. 우리는 온 인류

에게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과 그분의 백성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시 다시 일어났다는 이 교훈을 공언한다. 이 교훈으로부터 우리는 죄에 대해 더욱 죽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더욱 살게 된다.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행위와 움직임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이에게 이 교훈을 가르치고자 한다.

불쌍한 죄인이여, 당신은 이 죽음과 장사됨에 대해 아는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기 전까지 이에 대해 알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분의 이름을 믿으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다. 아멘. 아멘.